AGING

ISSUE TO INVESTMENT

투자사를 위한 사회문제와 산업 분석 리포트 Volume 1. 고령화

HGI triplelight

HGI

에이치지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성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캐피탈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사회 양극화 등 복잡하고 거대한 이슈가 만들어 내는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사회문제의 시급성과 솔루션의 시장성이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사람(Sustainable People),' '지속가능한 커뮤니티(Sustainable Community),' '지속가능한 지구(Sustainable Planet)'라는 세 가지 테마 내에서 긍정적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triplelight

트리플라잇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하는 임팩트 전략 및 측정 전문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우리 사회에 해결이 시급한 '진짜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한 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및 사업이 만드는 변화의 증거를 찾고, 솔루션을 개발 및 연결하며,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투자사와 함께 포트폴리오사들이 임팩트를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지표 설정, 측정 및 관리, 평가 및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파트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리플라잇은 우리 모두가 사회·환경·미래세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임팩트)을 고려해 의사결정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장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CONTENTS

01. PURPOSE & METHODOLOGY

리포트 발간 목적 06

주요 방법론 06

리포트 핵심 요약 08

02. SOCIAL ISSUES OF AGEING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12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 13

이슈별 트렌드 및 중요도 분석 14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고령화 이슈 18

03. SILVER INDUSTRY INSIGHTS

떠오르는 실버산업 특징과 전망 24

실버산업 분류체계 25

투자사가 바라본 실버산업의 성장과 기회 26

04. KEY HIGHLIGHTS

고령화 이슈와 실버산업의 연결고리 32

위기를 넘어 기회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투자 전략 34

주요 산업 테마 하이라이트 37

SPECIAL SECTION
AI가 실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54

PURPOSE & METHODOLOGY

01 리포트 발간 목적 및 방법론

리포트 발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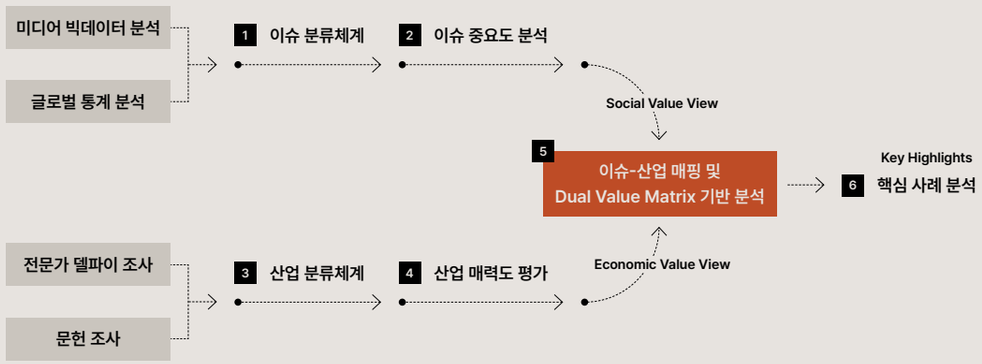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AI 등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문제들은 더욱 심화되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과 변화의 폭이 클수록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즈니스와 투자의 기회도 커질 수 있습니다. HGI와 트리플라잇은 이러한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Issue to Investment - 투자사를 위한 사회문제와 산업 분석 리포트'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교차하는 영역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을 인지하고 공감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요한 이슈와 산업 영역들을 하나씩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HGI와 트리플라잇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제로 고령화 이슈와 실버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들과 맞물려 새롭고 복합적인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출산율 저하 시기가 맞물리면서, 고령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극단적인 항아리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부양비 증가, 구조적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위기 요인과 현상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 금융, 주택, 노동시장 등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전 영역에 걸친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까요. 또한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HGI와 트리플라잇은 이슈와 산업 측면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슈의 중요도와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해 이슈-산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분석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잠재 니즈(Unmet Needs)를 발굴해 솔루션을 찾아가는 비즈니스 사례를 함께 다뤘습니다. 본 리포트가 더 많은 스타트업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방법론

HGI와 트리플라잇은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변화를 포착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슈와 산업 측면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슈의 중요도와 산업별 매력도를 평가해 이슈-산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진단을 도출하고 산업별 핵심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1.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 수립

사회문제 해결은 명확한 문제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HGI와 트리플라잇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식별해 구조화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화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피고 287,312 건에 달하는 미디어 데이터를 통한 사회 인식 분석을 통해 16개의 테마와 37개의 세부 이슈로 구성된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산업과 연계한 분석을 위해 시니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문제와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 이슈 중요도 평가 : 미디어 빅데이터 및 글로벌 통계 데이터 분석

국민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일까요. 뉴스 데이터 속에 나타나는 이슈의 언급 빈도와 증가량을 통해 이슈가 사회에서 다뤄지는 정도(가시성, 확산성)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OECD, WorldBank 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해당 이슈들이 해외 국가 대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심각성)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가시성과 심각성을 종합하여 이슈별 중요도를 평가했습니다.

3. 실버산업 분류체계 수립

이번 리포트는 방대한 산업 중 고령화와 연관이 깊은 사회문제를 식별하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슈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실버산업 분류체계는 산업별 특성 분석과, 이슈와의 연계를 위한 핵심 연구 틀로 사용됐습니다.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먼저 문헌 조사와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사례 조사를 통해 후보군을 도출 했습니다. 이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의 분류체계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을 참고하여 10개 산업과 19개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 '실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했습니다.

4. 산업 매력도 평가 : 문헌연구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경제적인 지속성, 성장성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존재하는 산업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유망산업, 유망기술 선정 연구를 위해 사용된 평가 항목 중 고령화 산업의 특성에 맞는 5가지 요소들을 선정하고 이를 종합한 점수를 '산업 매력도'로 활용했습니다. 12명의 벤처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1]를 2회에 걸쳐 진행하여 산업별로 산업 매력도를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5. 이슈-산업 매핑 및 Dual Value Matrix 기반 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이슈별로 존재하는 시니어들의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기준으로 산업과 이슈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슈-산업 맵(Issue - Industry Map)을 통해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를 종합하고 각 산업의 비즈니스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구조화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산업별 매력도와 연관된 이슈들의 중요도 평균값을 토대로 '듀얼 밸류 매트릭스(Dual Value Matrix, 34p)'를 그렸습니다.

6. 핵심 사례 분석

듀얼 밸류 매트릭스를 통해 4가지 영역(Balanced Impact, Social Drive, Growth Drive, Observant Ground)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 속한 세부 산업 테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실제 형성된 시장과 활동중인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검증했으며, 각 산업 테마와 연결되는 핵심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1] 설문조사를 통해 대면하지 않는 비실시간성 논의 과정을 반복하여 합의점을 찾는 방법.

리포트 핵심 요약

HGI와 트리플라잇은 '투자사를 위한 사회문제와 산업 분석 리포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고령화 이슈와 실버산업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초고령사회가 야기할 실버산업의 변화가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의 임팩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관련 미디어 빅데이터 28만 7,312건과 OECD 38개 관련 지표 통계 데이터 분석, 문헌 연구 및 벤처 투자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결과입니다.

1. 미디어 빅데이터로 분석한 고령화 이슈 중요도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시니어들이 겪는 19개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가시성·확산성·심각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립과 격차로 인한 불안과 불편 심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인한 심리적 고독감과 소외감,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문제가 소득 및 일자리 문제나 건강 문제보다 상위에 자리해, 해결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소득원과 일자리로 인한 노후 빈곤 문제, 만성질환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건강 문제 또한 주목해야 하는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12~21p)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18p)

2. 벤처투자 전문가가 평가한 산업 매력도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실버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요소로 19개 실버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한 결과,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헬스케어 산업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위권에 들며 가장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와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합 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실버산업의 확정적인 성장을 예견하며,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니즈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4~29p)

실버산업 영역	전체 평균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4.54 (1위)	4.50 (3위)	4.58 (1위)	4.42 (1위)	4.67 (1위)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4.54 (1위)	4.58 (1위)	4.58 (1위)	4.33 (2위)	4.67 (1위)
의약품 제조 및 유통	4.27 (3위)	4.58 (1위)	4.00 (6위)	4.00 (4위)	4.50 (3위)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4.06 (4위)	4.50 (3위)	4.50 (3위)	3.50 (7위)	3.83 (4위)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3.92 (5위)	4.00 (5위)	4.00 (6위)	4.17 (3위)	3.50 (9위)
주거복합시설	3.70 (6위)	3.83 (6위)	4.17 (4위)	3.82 (6위)	3.00 (15위)
식음료 제조 및 유통	3.46 (7위)	3.83 (6위)	3.50 (8위)	3.00 (11위)	3.50 (9위)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3.46 (7위)	3.50 (10위)	3.25 (12위)	3.92 (5위)	3.17 (13위)
취업지원 서비스	3.42 (9위)	3.58 (9위)	3.75 (7위)	3.33 (8위)	3.00 (15위)
문화 예술 및 스포츠	3.35 (10위)	3.50 (10위)	3.33 (9위)	3.08 (9위)	3.50 (9위)
모빌리티	3.27 (10위)	3.25 (16위)	3.33 (9위)	2.83 (12위)	3.67 (5위)
여행 및 관광	3.25 (11위)	3.67 (8위)	3.33 (9위)	2.58 (13위)	3.42 (11위)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3.17 (12위)	3.50 (10위)	2.92 (16위)	3.08 (9위)	3.17 (13위)
장묘·장례·조문관리	3.13 (13위)	3.42 (13위)	3.00 (14위)	2.58 (13위)	3.50 (9위)
뷰티 및 패션	3.08 (14위)	3.42 (13위)	3.08 (13위)	2.33 (15위)	3.50 (9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96 (15위)	3.42 (13위)	2.67 (16위)	2.33 (15위)	3.42 (11위)

전문가들이 평가한 실버산업 매력도(27P)

3. 위기를 넘어 기회로, 임팩트를 만드는 투자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를 기준으로 '듀얼 밸류 매트릭스(Dual Value Matrix)'를 도출하여 종합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모두 높은 산업으로 헬스케어 분야와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시니어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혁신 기술을 통한 비용효과성과 접근성 개선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모습입니다.

이슈 중요도에 비해 산업 매력도가 높은 산업으로는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와 주거복합시설이, 반대로 이슈 중요도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매력도가 낮은 영역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가 확인됐습니다.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 간의 미스매치가 발견되는 지점으로,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높아질 것이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또한 실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디지털 기술이 주목받는 만큼,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실버산업의 연결고리와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2019년부터 실버산업과 인공지능이 함께 언급되는 뉴스 데이터 수는 연평균 24%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모빌리티' 분야에서 실버산업에 미치는 AI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2~57p)

Dual Value Matrix

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와 국가 차원의 부담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투자자·정부 등 모든 주체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고령자의 시각에서 주요 이슈들을 바라보고, 다양한 섹터 내에 숨어있는 니즈를 발굴하여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버산업은 정부의 복지 및 의료 정책과 관련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B2G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 확대, 실버산업 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혁신 장려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실버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독려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SOCIAL ISSUES OF AG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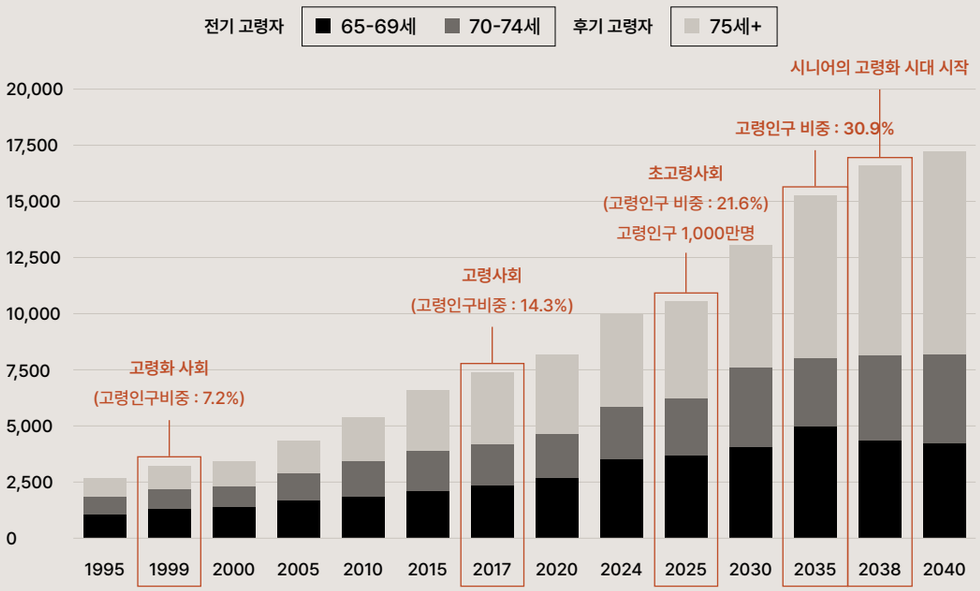
02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고령화 이슈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시니어[1] 1,000만 명 시대입니다. 2017년 고령사회(고령화율 14.3%)로 진입한 한국은 2024년 기준 5명 중 1명이 시니어(고령인구 993만명)인 나라가 됐습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1.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65~74세의 '전기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1.3%(583만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55~64세의 '예비 고령자'가 16.3%(845만명)에 달해 현재 10대 인구(455만명) 보다 1.9배 많습니다. 2038년에는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65~74세 고령 인구를 앞지르며, '시니어의 고령화'[2]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추계

단위: 명



출처 :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통계청, 2025년부터는 추정치)

2024년 한국의 고령자 비중

단위: 천명

연령별		전체	남성	여성	연령 비율
계		**51,751**	**25,877**	**25,874**	**100%**
55세 미만	0 - 54세	4,460	2,253	2,207	64.45%
예비 고령자	55 - 64세	3,616	1,938	1,678	16.34%
전기 고령자	65 - 74세	3,297	1,731	1,566	11.27%
후기 고령자	75세+	4,024	2,070	1,954	7.93%

출처 :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통계청)

[1] UN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고령화율'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많은 선진국들이 시니어를 6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통계청에서도 2003년 이후 매년 노인의 날에 맞춰 65세를 기준으로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만큼, 이 보고서에서는 시니어의 범위를 국내외 통용되는 65에 이상으로 하되, 각 통계나 보고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시니어'를 분류함.

[2] 시니어의 고령화 : 후기 고령자가 전기 고령자보다 많아지는 시기(초고령사회 일본, 대신증권, 2023.11.09 보고서 인용)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파생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복지 체계가 흔들리고, 이를 부양하는 사회 시스템도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HGI와 트리플라잇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령화 관련 문제들을 구조화 하고, 각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와 이슈들을 식별해 구조화 하였습니다. 고령화의 원인과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28만 7,312건에 달하는 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령화 이슈 분류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고령화 이슈 분류 체계는 시니어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즈니스로 해결 가능성이 높은 9개 테마, 19개 세부 이슈로 구성되었습니다[3]. 해당 이슈들은 '소득 및 일자리(Job&Income)', '생활 및 주거(Life&Living)', '건강 및 웰빙(Health&Well-being)' 등 3가지 어젠다로 분류되어, 우리가 주목할 고령화 이슈 트렌드와 심각성 수준을 연계 분석하는 기준으로 활용됐습니다.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

테마	중분류	세부 이슈
소득과 지출	Job & Income	불충분한 노후 준비(노후 빈곤)
	Job & Income	의료비 부담 증가
	Job & Income	퇴직, 가구 분화 후 소득 절벽
일자리	Job & Income	양질의 일자리 부족
	Job & Income	이른 정년 퇴직 및 조기 퇴직
주거	Life & Living	노인주거복지시설 부족
	Life & Living	맞춤형 주거 환경 부족
신체적 건강	Health & Well-being	신체 제어 및 인지 능력 저하
	Health & Well-being	영양 및 식단 관리 부족
	Health & Well-being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
정신적 건강	Health & Well-being	퇴행성 뇌질환
	Health & Well-being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 질환 유병률 증가
생활 편의	Life & Living	일상 활동의 불편
	Life & Living	디지털·정보 격차
	Life & Living	이동/교통 안전 및 접근성 부족
여가·문화 생활	Life & Living	여가·취미 생활 부족
사회적 관계	Health & Well-being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
	Health & Well-being	가족과의 갈등 심화
교육	Life & Living	평생교육 질적·양적 부족 및 기회 격차

[3] 본 리포트에서는 고령화 관련 이슈 중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테마와 이슈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이슈별 트렌드 및 중요도 분석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고령화 이슈는 무엇일까요. HGI-트리플라잇은 ▲이슈 가시성(떠오르는 고령화 이슈 발굴) ▲이슈 확산성(고령화 이슈 증가량 및 파급력) ▲이슈 심각성(OECD 국가 대비 국내 심각성) 등 3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고령화 이슈 중요도를 분석했습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지, 글로벌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심각도는 어떠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기준 및 방법론

분석 기준	분석 지표	분석 데이터	측정 방법론
이슈 트렌드	이슈 가시성	고령화 이슈 관련 뉴스 데이터 28만 7,312 건 분석	이슈 관련 뉴스 데이터 빈도 분석 후 5점 환산 (단위: 뉴스 건수)
	이슈 확산성		이슈 관련 뉴스 데이터 빈도 연평균 증가량 분석 (시간 가중치 적용)후 5점 환산 (단위: 뉴스 연평균 증가율)
이슈 심각성		OECD 국가 통계 지표 38개 분석	이슈 관련 국내 순위 분석 후 5점 환산

한국의 고령화 이슈 트렌드 : 이슈 가시성&확산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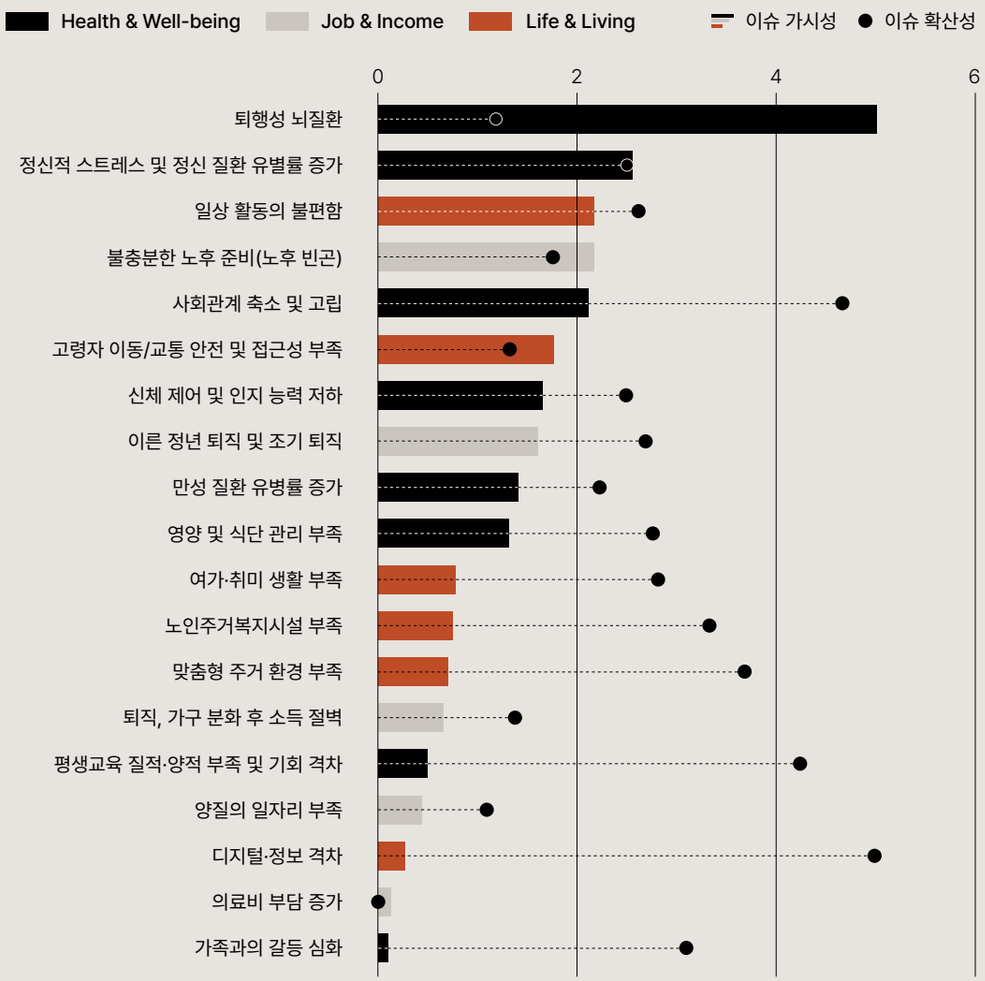
국민들이 주목하는 고령화 관련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령화 이슈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의 뉴스 데이터 28만 7,312건을 분석하여 고령화 이슈 가시성과 확산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시성은 미디어 상에서 해당 이슈가 다른 키워드 대비 얼마나 부각되는지(뉴스 건수)를 나타내며, 확산성은 해당 이슈의 가시성이 5년간 얼마나 증가했는지(연평균 뉴스 증가량)를 설명합니다.

분석 결과 건강과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고령화 이슈들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미디어에서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퇴행성 뇌질환' 관련 뉴스 보도량은 2만 4,098건으로 가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파킨슨병·알츠하이머 등의 세부 질환과 각종 치료법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노후에 겪는 심리적 건강 악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1만 2,675건)'와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1만 547건)' 관련 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더하여 '불충분한 노후 준비(노후 빈곤)'은 여러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가시성 4위)을 보였습니다.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니어가 느끼는 '디지털·정보 격차'도 급격히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이슈는 연평균 증가율이 23.6%(확산성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니어의 디지털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솔루션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주거, 교육, 여가,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 이슈는 가시성(뉴스 보도 1만 547건) 뿐만 아니라 확산성(연평균 증가율 21.7%) 측면에서도 높게 나타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니어 세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맞춤형 주거 환경 부족(15.7%)',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13.6%)'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고령화 이슈 트렌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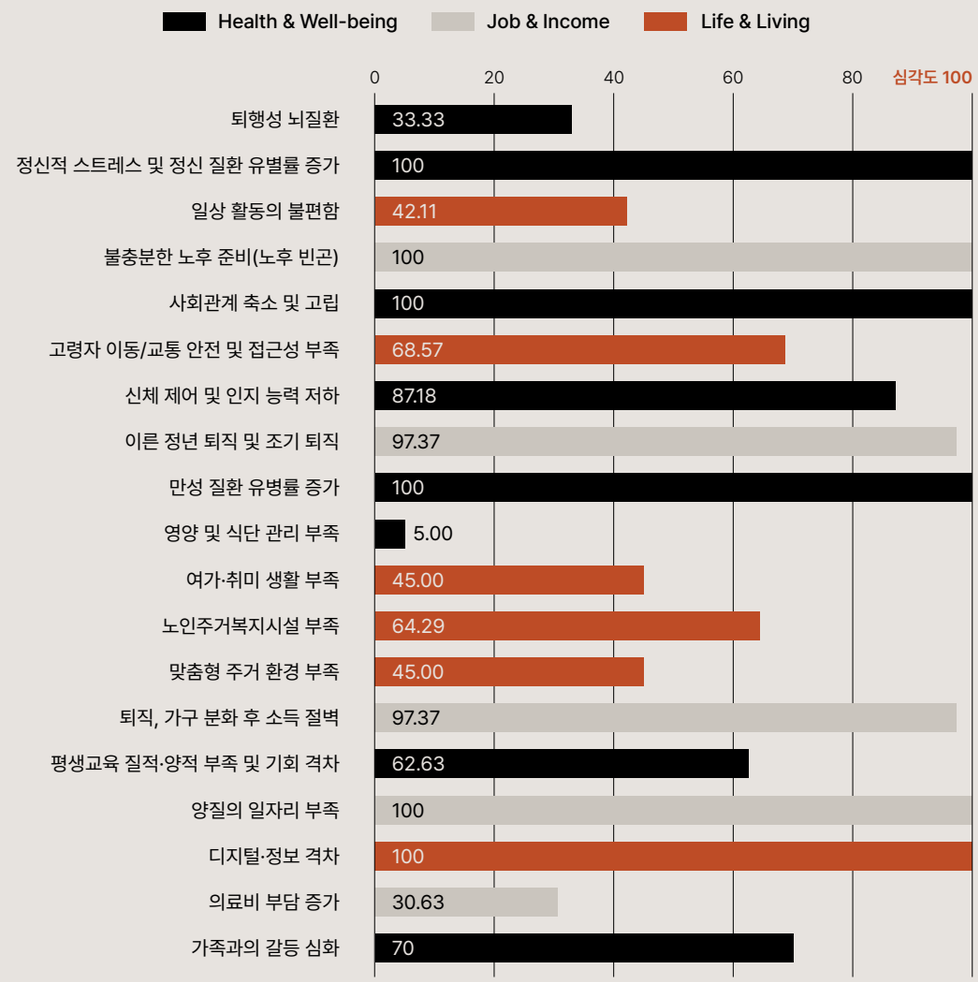
가시성 TOP 5	단위 : 뉴스 건수	확산성 TOP 5	단위 : 연평균 뉴스 증가량
1	퇴행성 뇌질환 (24,098 건)	1	디지털·정보 격차 (23.6%)
2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12,675 건)	2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 (23.6%)
3	일상 활동의 불편 (10,836 건)	3	평생교육 질적·양적 부족 및 기회 격차 (23.6%)
4	불충분한 노후 준비 (노후 빈곤) (10,819건)	4	맞춤형 주거 환경 부족 (15.7%)
5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 (10,547 건)	5	노인주거복지시설 부족 (13.6%)

한국의 고령화 심각도 : 이슈 심각성 분석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로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은 7년으로 가장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10년) 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53년, 프랑스는 39년에 걸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흐름에서 노인 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슈 심각성 분석 결과 노후 빈곤, 건강, 격차 및 고립 관련 문제가 OECD 주요국 대비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 대비 한국 고령화 이슈 심각성[1]

단위: 점(100점 만점)



[1] OECD 주요국 대비 한국 순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심각성 수준을 나타낸 값임. OECD 주요국 대비 순위가 높을수록 심각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14.2%)과 비교해도 3배 가량 높습니다. 국가별로 산출한 전체 연령 빈곤율(15.3%)과 노인 빈곤율간 격차도 25.1%로 가장 큽니다. 65세 이상 임시 고용자 비중(temporary employment)은 70%를 차지해 2위인 스웨덴(49.9%)보다 1.5배 높으며, OECD 평균(17%)의 4배가 넘습니다.

시니어가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사회적 관계망 비중 조사(Social Support)'고 응답한 비율(50세 이상)이 63.8%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관계를 높이기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 건강과 자살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9.9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며, OECD 국가 평균(17.2명)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 건강 이슈 역시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로 인한 병원 입원율은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OECD 주요 24개국 중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의식주, 사회관계 등 일상 생활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에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층(55~65세) 중 디지털 능력이 없거나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약 96%로 OECD 평균(90%)보다 높습니다. 또한 고령층 디지털 고숙련군 비중(3.9%)은 16~24세(63.4%)와 59.5% 차이를 나타내며, OECD 국가 중 세대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 전환에서 뒤쳐질 경우, 삶의 질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고령화 이슈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시니어들이 겪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세분화하고, 이슈 중요도(이슈 가시성·확산성·심각성 종합)를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중점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버세대의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3.94점)' 문제 해결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3.42점)',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병률 증가(3.36)' 문제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버세대의 고립 및 격차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들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실버세대의 조기 퇴직 등 노후 빈곤에 대한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정년 퇴직 및 조기 퇴직(3.07점)'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노후 빈곤, 2.98점)'이 4-5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만성질환 등 신체적인 활동과 인지 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건강 문제 역시 주목해야 하는 이슈로 나타났습니다.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

단위: 점(5점 만점)

고립과 격차로 인한 불안·불편 해소해야

실버세대에겐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인해,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줄면서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 축소로 인해 자존감 감소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1].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 '사회 관계 축소 및 고립', '디지털·정보 격차',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문제 해결이 소득 및 일자리 문제(4~5위)보다 상위권(1~3위)로 나타난 이유일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 36%가 1인 가구이며, 60대 이상 시니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조사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들의 사회 관계 단절과 고립이 우울증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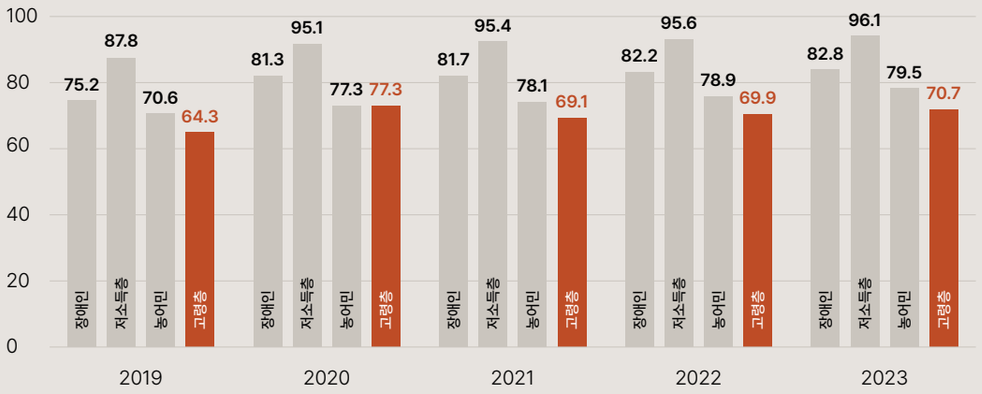
연령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13 - 18세	-	51.4	83.7
19 - 29세	79.6	60.1	85.6
30 - 39세	77.6	60.8	82.8
40 - 49세	75.1	58.3	82
50 - 59세	71.4	49.3	79.8
60세 이상	**70.3**	**37.9**	**73.1**

출처 : 2023 사회조사 (통계청)

디지털 격차에 따른 삶의 질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다른 취약계층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은 70.7%로 전체 취약계층 평균(76.9%) 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식당, 은행, 카페 등 대다수 공간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는 데다가 모든 정보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등 디지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 등 접근성을 높이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

단위: %



출처 :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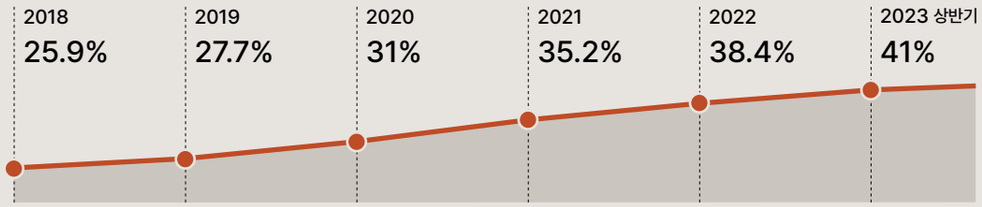
[1] 이은희, 이양수(202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감의 영향요인 연구

노후 빈곤 방지하는 소득원·일자리 필요해

노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의 노인 빈곤율(소득 기준)은 40.3%로 OECD 국가 대비 가장 높습니다. 한국의 정년은 60세로 보장되어 있지만, 직장에서 퇴직하는 실질적 은퇴 연령은 평균 49.3세입니다. 62세(2033년 65세)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60세 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10여년간 소득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소득원을 마련하지 않거나, 재취업 등 대안이 없다면 노인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1]. 노인 파산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3년 상반기엔 41%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생활비 지출 증가,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퇴 후에도 직접 일하려는 시니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주된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60세 이상 시니어 비중이 76%에 달했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 57.8%로 1위를 차지했고, 연금·퇴직급여 29.0%, 재산소득 8.1% 순이었습니다. 장래에 일하고 싶어하는 시니어의 비중도 10년 전에 비해 8.4% 증가하면서 68.5%를 차지했습니다. 시니어의 다양한 취업 기회 마련 등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노후 빈곤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파산 비율



출처: 개인파산비중(법원행정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시니어의 신체적 건강과 웰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 만성질환, 신체활동, 퇴행성 뇌질환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5.8세입니다. 시니어들은 평균적으로 약 17년(유병기간 16.9년)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아픔을 겪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유병률은 2008년과 비교해 2020년에 약 2배 가량 증가해[3],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함께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니어의 84%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인구 10만명 당 치매로 인한 사망자 역시 2007년 9.8명에서 2021년 20.2명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4]. 초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시니어의 건강 문제는 개인, 가족을 넘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

2022년 기준

출처: 2022 생명표(통계청)

[1] 통계청(2023.05),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2] 법원행정처(2023), 개인파산통계
[3] 중앙일보(2023), 노인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6월 27일 보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014#home
[4] 질병관리청(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5] 통계청(2023), 2023 고령자 통계

늘어나는 시니어 수에 비해 이들을 위한 주거 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주거복지시설 수는 2018년 390곳에서 2022년 308곳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증가하는 고령자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된 것은 3,924가구 (공급 발표의 57%) 수준입니다. 2023년 말까지 확보된 노인전용주택은 약 3만호로 전체 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합니다. 2024년 내 3,000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약 30만명)가 노인전용주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인주거시설 현황

출처 : 노인가구 주거편익향상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24.2)

고령화로 인한 일상의 불편 해소와 생활 환경 조성 필요해

지난 13년간 60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했습니다[5].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으며, 2045년 이후에는 세계 1위의 고령 국가가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니즈(needs)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60세 이상 노후를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7.9%), 노후소득 지원(35.6%), 노후 취업지원(17.3%) 순으로 답했습니다[6].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들입니다. 이에 더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여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단위: %

순위	구분	비중
1	의료·요양보호 서비스	37.9
2	노후 소득 지원	35.6
3	노후 취업 지원	17.3
4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5.3
5	교통·주거환경 조성	2.2
6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7
7	기타	0.1

출처 : 2023 사회조사 (통계청)

이처럼 고령화로 인해 중요해질 사회문제는 정부 차원의 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세밀한 전략과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예방적 건강관리, 사회적 돌봄, 소득 안정 및 주거 생활 등 이들의 불편과 잠재적 니즈를 해소하는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산업 차원의 관심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 고령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빠른 속도'인 만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빠르게 확장하는 비즈니스의 역할과 민첩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6] 통계청(2023),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SILVER INDUSTRY INSIGHTS

03 실버산업의 성장과 기회

떠오르는 실버산업 특징과 전망

글로벌 실버산업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600조원에서 2029년 약 3,1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20년 15.8%에서 2030년 24.7%로 급격히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선진국 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 입니다.

2020~2030 국가별 고령층 비중

단위: %

국가	출생시기	65세 진입시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	
			2020년	2030년
미국	1946~1964	2011년	16.6	20.3
일본	1947~1979	2012년	28.4	30.9
이탈리아	1946~1970	2011년	23.3	27.9
스웨덴	1946~1953	2011년	20.3	22.2
한국	**1955~1963**	**2020년**	**15.8**	**24.7**

출처 : 실버산업 해외사례와 활성화 전략(KIRI)

고령화 속도 만큼 국내 실버산업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상황 및 신체 기능 악화에 따라 의존도가 높은 '케어 시니어(Care senior)'와 달리, 삶 전반에 대한 자립도가 높고 개방적인 문화와 소비 성향을 가집니다. 실제로 고소득-고자산을 보유한 시니어 비중이 2016년 54.2%에서 2021년 59.3%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1]됨에 따라,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대비 6.6% 증가한 약 72조원으로 조사됐으며, 2030년에는 133% 증가해 16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연도별 시니어의 소득-자산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소득-고자산	54.2	55.0	55.7	56.1	58.2	59.3
고소득-저자산	2.0	2.6	2.2	2.3	2.7	2.9
저소득-고자산	10.0	10.1	9.5	9.6	10.2	10.1
저소득-저자산	33.8	32.3	32.6	32.0	28.9	27.7

출처 :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KDI, 2023

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에서는 실버 시장을 1:8:1의 비율로 나뉘는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 극단의 10%의 실버 시장은 '부유층'과 '취약층'으로, 이들의 니즈가 이미 가시화돼있기에 기업의 접근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나머지 80% 고령자 시장은 잠재 니즈의 발굴에 따라 개척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3].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액티브 시니어와 실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잠재 니즈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지원과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1] KDI(2023),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2), 2021년 고령친화산업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3] 박소정(2024),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환경

실버산업 분류체계

고령화 흐름과 맞물려 시니어 시장 속 새로운 수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며,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의 성장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는 모습입니다. HGI-트리플라잇은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보다 세부적인 산업 분석을 위해, 시니어 관련 10개 산업 영역 및 19개 세부 산업 테마로 구성된 '실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과 국가승인통계에 활용하는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과 문헌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니어 비즈니스 사례를 연계 및 통합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전문가 12명의 감수를 통해 분류체계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및 개선했습니다.

실버산업 분류체계

시니어 관련 산업 영역	세부 산업 테마
금융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일자리	취업 지원 서비스
	창업 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헬스케어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돌봄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주거·건축	건설 및 건자재
	주거복합시설
식품	식음료 제조 및 유통
교육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여가·문화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여행 및 관광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4]
생활·편의	모빌리티
	뷰티·패션
기타	장묘·장례·조문 관리

[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근래에 웹/앱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용어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고려하여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함.

투자사가 바라본 실버산업의 성장과 기회

HGI-트리플라잇은 실버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여, 벤처투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1]를 진행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실버산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 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 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등 4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실버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버산업의 성장과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내용

조사 회차	주요 질의 내용	조사 대상
1차 조사	- 실버산업의 특징 및 산업 활성화 방안 - 19개 산업 테마 매력도 평가 및 2차 평가 대상(16개 테마) 도출 * 전문가 의견 일치도 및 평균 점수가 낮은 테마는 2차 평가에서 제외 : '창업 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건설 및 건자재'	벤처투자 전문가 12명
2차 조사	- 16개 산업 테마 매력도 평가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등 4개 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	

전문가 소속 기관(가나다 순) : 본앤젤스, 소풍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비저닝파트너스, 크릿벤처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DSC 인베스트먼트, HGI, MYSC

실버산업 매력도 평가 기준

미래 성장성	기술력, 글로벌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간 해당 세부 산업 테마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세부 산업 테마가 고용 및 타 산업 활성화 등 국민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어떠할까
정책 연계성	법률, 제도, 정책의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세부 산업 테마의 성장 환경은 얼마나 긍정적인가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떠한가

전문가들이 바라본 실버산업의 특징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실버산업의 특징을 크게 ▲예측가능성 ▲소비 주체의 다양성 ▲연계성&혁신성 등 3가지로 꼽았습니다.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와 맞물려 실버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 역시 성장세가 명확한 만큼 불확실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시니어 시장의 소비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분석한 전문가도 많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은 시니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부양자(지불 주체)와 수혜자(시니어) 모두 실버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복지 정책 의존도가 높은 시니어 돌봄 영역의 경우 정부의 요양보험 등 정책을 활용하는 B2G 전략으로 규모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니즈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친숙도 및 기술 이해도가 높은 시니어층의 새로운 소비 패턴이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와 서비스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는 확실시 되기 때문에, 불확정성이 큰 타 산업 대비 실버산업은 산업 성장기의 도래 및 변화 시점에 대한 변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및 기업 운영 차원에서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C

" 취약계층 또는 사회집단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와 달리, 실버산업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니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인구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보편적 복지 체계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줄어들어, 민간의 역할이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 B**

" 실버산업의 경우 주요 경쟁 대상으로 '정부'가 있다는 점이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실버산업에서 가장 큰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I**

전문가들이 평가한 실버산업 매력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산업 매력도 평가 결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헬스케어 산업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상위 5위권에 들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버세대의 건강을 위한 산업 중에서도 미래 성장성과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테마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큰 테마로 꼽혔습니다.

한편 '금융·자산관리 서비스(4위)'와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5위)' 테마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산업 매력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미래 성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위권(3위)에 올라, 현재와 미래 비즈니스 기회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복합시설'은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에서 4위에 올랐고,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은 정책 연계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버세대의 신체 활동과 일상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모빌리티' 산업 테마의 경우, 벤처 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항목에서 5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버산업 영역	전체 평균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4.54 (1위)**	**4.50 (3위)**	**4.58 (1위)**	**4.42 (1위)**	**4.67 (1위)**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4.54 (1위)**	**4.58 (1위)**	**4.58 (1위)**	**4.33 (2위)**	**4.67 (1위)**
의약품 제조 및 유통	**4.27 (3위)**	**4.58 (1위)**	**4.00 (5위)**	**4.00 (4위)**	**4.50 (3위)**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4.08 (4위)**	**4.50 (3위)**	**4.50 (3위)**	3.50 (7위)	**3.83 (4위)**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3.92 (5위)**	**4.00 (5위)**	**4.00 (5위)**	**4.17 (3위)**	3.50 (6위)
주거복합시설	3.70 (6위)	3.83 (6위)	**4.17 (4위)**	3.82 (6위)	3.00 (15위)
식음료 제조 및 유통	3.46 (7위)	3.83 (6위)	3.50 (8위)	3.00 (11위)	3.50 (6위)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3.46 (7위)	3.50 (10위)	3.25 (12위)	**3.92 (5위)**	3.17 (13위)
취업지원 서비스	3.42 (8위)	3.58 (9위)	3.75 (7위)	3.33 (8위)	3.00 (15위)
문화 예술 및 스포츠	3.35 (9위)	3.50 (10위)	3.33 (9위)	3.08 (9위)	3.50 (6위)
모빌리티	3.27 (10위)	3.25 (16위)	3.33 (9위)	2.83 (12위)	**3.67 (5위)**
여행 및 관광	3.25 (11위)	3.67 (8위)	3.33 (9위)	2.58 (13위)	3.42 (11위)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3.17 (12위)	3.50 (10위)	2.92 (15위)	3.08 (9위)	3.17 (13위)
장묘·장례·조문관리	3.13 (13위)	3.42 (13위)	3.00 (14위)	2.58 (13위)	3.50 (6위)
뷰티 및 패션	3.08 (14위)	3.42 (13위)	3.08 (13위)	2.33 (15위)	3.50 (6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2.96 (15위)	3.42 (13위)	2.67 (16위)	2.33 (15위)	3.42 (11위)

미래 성장성 : 실버세대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실버산업의 모든 영역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니어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600조원에서 2029년 약 3,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매력도 분석 결과처럼, 실버세대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주거, 식음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재 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용이한 초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모빌리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테마는 기존 서비스의 확장을 통한 공급 한계로 인해, 성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변화 흐름이 유사한 일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에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 " 인구 구성의 비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실버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보편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합니다. 단 각 산업 영역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신기술과의 융화와 접목 가능성 차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의 출현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신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높은 산업영역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 **전문가 A**

경제적 파급효과 : 신규 고용 창출 잠재력을 고려해야

국가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항목에서는 전문가들 모두 신규 고용 창출과 수요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AI와 로봇을 통한 인력 대체가 어려운 영역부터 고용 창출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복합시설(4위)의 경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다른 산업 테마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급력이 높을 것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 지출(CAPEX)이 많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 " 노인 빈곤 등 경제적인 분야와 관련된 필수 영역(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영역(시설 및 재가 요양), AI 혹은 로봇이 대체하기 쉽지 않은 영역부터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문가 L**
>
> " (주거복합시설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산업군으로 블루칼라 직업군 위주의 확실한 고용 창출 효과는 있겠지만, 자본 지출이 높기 때문에 폭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 **전문가 H**

한편, '모빌리티(공동 9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공동 9위)', '여행 및 관광(공동 9위)', '뷰티 및 패션(13위)' 산업 테마는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로 인해 부가가치 창출은 기대되지만, 비즈니스 전환과 미래세대로의 자산 전이가 어렵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 여행 및 관광 영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빌리티 영역은 기존 서비스 커버리지 내에서 시니어 계층을 위한 상품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신규 서비스가 기대되지 않으므로 낮은 수준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전문가 G**

정책 연계성 : 헬스케어와 평생교육 분야의 지원책 기대돼

정부 규제로 인한 제약과 정책 연계를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매력도가 높았던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보험과 연계된 정책적 수혜가 가장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해 파급력이 큰 신규 지원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산업과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3위) 영역 외에는 민간 자본의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반면,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5위)' 테마의 경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 운영 자금 보조 등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타났습니다.

> " 의료/건강/재가 영역 외에 타 산업에서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민간 자본 대비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활성화 및 시니어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가 D**
>
> " 은퇴 후 교육 관련, 의료 관련 영역이 정책 연계성으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의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련 영역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전문가 H**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 모빌리티·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주목해야

고령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도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벤처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은 전통적인 복지 영역을 넘어선 비즈니스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주거복합시설(공동 15위)'처럼 자본 규모와 노동 집약적 특성을 가진 산업의 경우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외에도 '모빌리티(5위)' 테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대중교통이나 기존 이동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령자의 이동 접근성 부족 문제를 AI나 로봇 등의 기술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담긴 평가로 분석됩니다. '문화 예술 및 스포츠(공동 6위)', '장묘·장례·조문 관리(공동 6위)', '뷰티 및 패션(공동 6위)' 테마의 경우 정책을 통한 지원 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한 문제 해결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 " 정부 차원의 복지 영역과는 거리가 있고, 영리적인 비즈니스가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고령화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경우 자율 주행과 같이 시니어의 실제 이동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와 이동 수단이 필수적으로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 D**
>
> " 주거복합시설과 같이 자본집약적 및 노동집약적 사업에 가까울수록 벤처투자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판단됩니다. " **전문가 H**

KEY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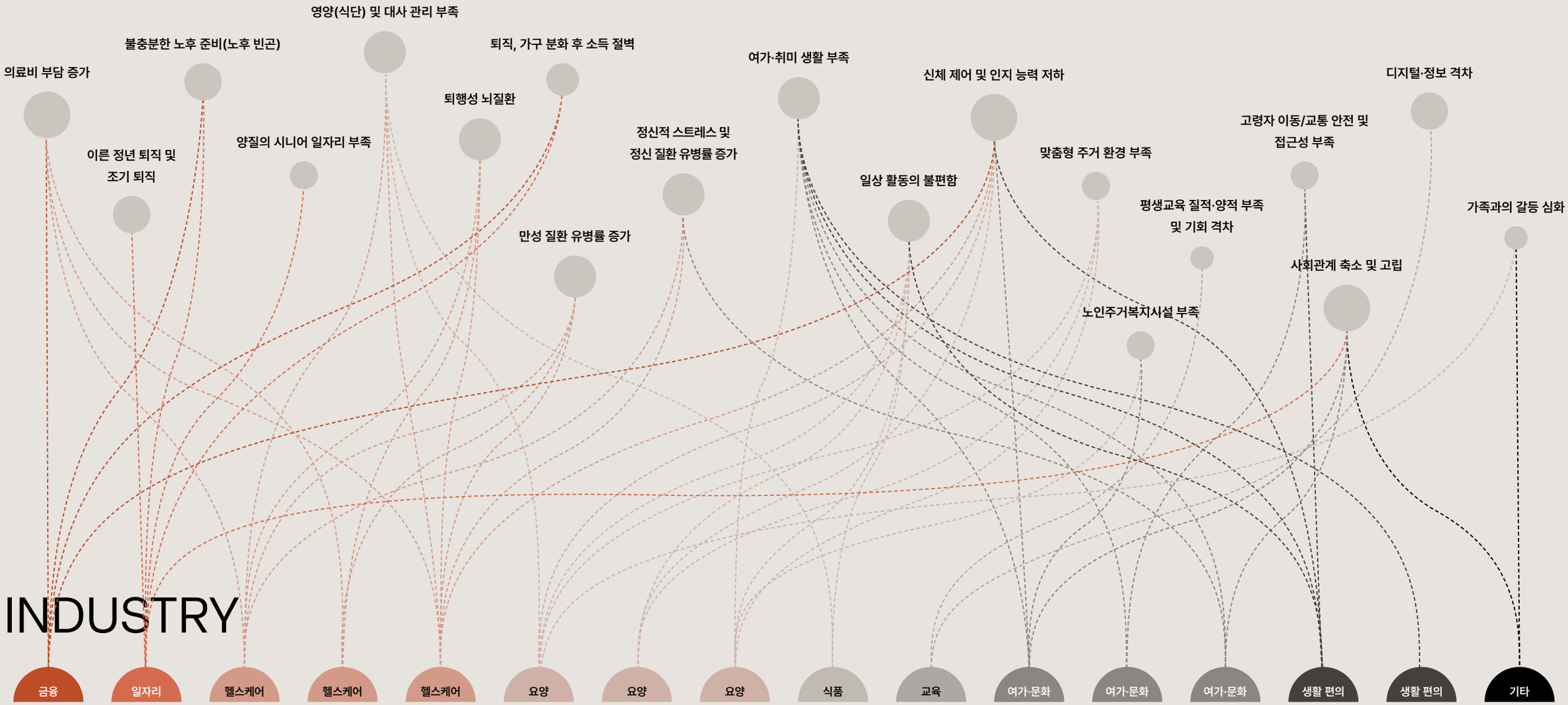
04 임팩트를 만드는 투자

고령화 이슈와 실버산업의 연결고리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의 발전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 연결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이 개발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규모화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편,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이로 인해 사회·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낳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의료비 부담 증가, 노후 빈곤, 조기 퇴직, 일상 활동의 불편함, 디지털·정보 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 교육, 금융 등 여러 산업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연결되는 각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동반하기에, 지속적인 혁신과 세밀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에 HGI-트리플라잇은 이슈-솔루션 매핑 방법론을 통해, 고령화 문제와 연계되는 산업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미디어 분석 및 선행연구를 통해 세부 이슈별로 시니어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 사례를 탐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령화 이슈 분류체계와 실버산업 분류체계를 연결해 주목해야 하는 이슈-산업 연결고리를 도출했습니다.

ISSUE



INDUSTRY

금융	일자리	헬스케어	헬스케어	헬스케어	요양	요양	요양	식품	교육	여가·문화	여가·문화	여가·문화	생활 편의	생활 편의	기타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취업 지원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주거복합시설	식음료 제조 및 유통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문화 예술 및 스포츠 활동	여행 및 관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모빌리티	뷰티 및 패션	장묘·장례·조문관리

위기를 넘어 기회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투자 전략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벤처투자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1].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지속가능한 펀드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4조 달러 이상의 자본을 전통적인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펀드 및 포트폴리오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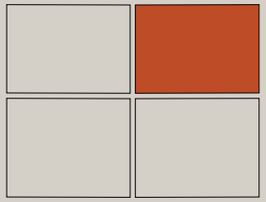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은 잠재 니즈(Unmet-needs)를 발굴해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비즈니스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HGI와 트리플라잇은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정하는 '듀얼 밸류 매트릭스(Dual Value Matrix)'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와 연결되는 주요 산업 영역과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Dual Value Matrix

***이슈 중요도 :**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얼마나 해결 우선순위가 높은지 보여주는 척도. 미디어 분석, 문헌 조사를 통해 산업과 관련된 이슈의 정량적인 트렌드, 심각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중요도로 평가

***산업 매력도 :** 산업이 투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척도. 투자 영역 전문가 설문을 통해 '미래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 연계성', '벤처투자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의 4가지 항목을 묻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

1. Balanced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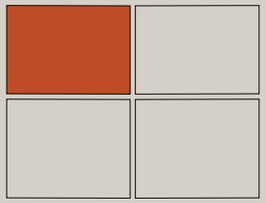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균형있는 창출이 기대되는 영역

문제 해결 중요성이 크고 산업 매력도가 높은 영역으로, 향후 투자자가 가장 주목할 산업 테마로 전망됩니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시설 및 재가 요양서비스 등 4개 세부 사업 테마가 'Balanced Impact'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산업 영역	이슈 중요도(5점 만점)	산업 매력도(5점 만점)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4.01점(1위)	4.54점(공동 1위)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3.63점(4위)	4.54점(공동 1위)
의약품 제조 및 유통	3.85점(2위)	4.27점(3위)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3.49(7위)	3.92점(5위)

이 영역에 속한 산업 테마들은 모두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등의 뇌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치료제 및 의료기기 개발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를 절감하거나 질병 예방, 진료 및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하게 여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 신체 활동과 인지 능력의 제약으로 요양이 필요한 케어 시니어,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등이 해당 사업 테마의 폭넓은 타깃 소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실버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발굴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2. Social Drive



사회적 가치의 우선적 창출이 기대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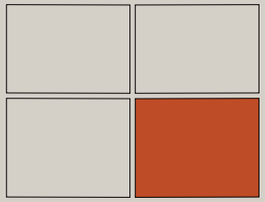
문제 해결 중요성이 크지만 산업 매력도가 낮은 영역으로, 중장기 관점에서의 투자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등 3개 산업 테마가 'Social Drive'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산업 영역	이슈 중요도(5점 만점)	산업 매력도(5점 만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3.63점(5위)	2.96점(16위)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3.53점(6위)	3.46점(8위)
취업 지원 서비스	3.67점(3위)	3.42(9위)

이 영역에 속한 산업 테마들은 연결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비즈니스 관점의 솔루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니어의 '고립'과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감을 높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생 교육, 자기계발,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립의 원인이 되는 실버세대의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 J.P Morgan, The Rockefeller Foundataion & GIIN(2010), Impact Investments: An emerging asset class
[2] Markets Media(2022), BlackRock ESG Assets Pass $500bn
https://www.marketsmedia.com/blackrock-esg-assets-pass-500bn/

3. Growth Dr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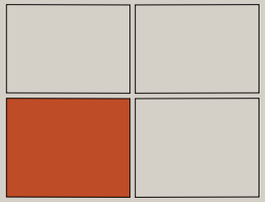
경제적 가치의 우선적 창출이 기대되는 영역

산업 매력도가 높지만 이슈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높은 성장 산업으로 분석됩니다. 'Growth Drive' 영역에는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주거복합시설 등 2개 산업 테마가 포함됐습니다.

산업 영역	이슈 중요도(5점 만점)	산업 매력도(5점 만점)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3.24점(11위)	4.08점(4위)
주거복합시설	3.32점(8위)	3.70점(6위)

해당 영역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많은 시니어들이 주 소비층인 시장에 속합니다. 최근 국내 4대 시중은행(KB금융·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거래하는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이 전체의 44.4%로 집계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종합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시니어 금융 시장은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산층 이상의 시니어 계층을 타깃으로 한 주거 모델과 종합 서비스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융 및 건설사를 중심으로 실버타운 사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여가 활동과 커뮤니티를 갖춘 주거시설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주거 모델의 잠재력도 주목할 만 합니다.

4. Observant Ground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굴이 필요한 영역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이슈-산업간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중장기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Observant Ground' 영역에는 식음료 제조 및 유통, 모빌리티,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뷰티 및 패션, 장묘·장례·조문 관리, 여행 및 관광 사업 테마가 포함됐습니다.

산업 영역	이슈 중요도(5점 만점)	산업 매력도(5점 만점)
식음료 제조 및 유통	3.02점(14위)	3.46점(7위)
모빌리티	3.23점(12위)	3.27점(11위)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3.29점(10위)	3.17점(13위)
문화 예술 및 스포츠	3.32점(9위)	3.35점(10위)
뷰티 및 패션	3.14점(13위)	3.08점(15위)
장묘·장례·조문 관리	2.88점(15위)	3.13점(14위)
여행 및 관광	2.85점(16위)	3.25점(12위)

'식음료 제조 및 유통', '모빌리티',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 산업 테마는 실버세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역으로, 시니어의 니즈에 따라 이슈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령자 식단과 대사 관리를 돕는 영양식 제조·배달, 이동 및 활동 편의성을 돕는 맞춤형 기술 및 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 및 스포츠 활동', '여행 및 관광', '뷰티 및 패션' 등 여가 및 취미 생활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매장 대신 화장을 하거나, 추모 의미를 높이는 '작은 장례식' 등 변화하는 장례·장묘·조문 문화에 발맞춘 신규 서비스 역시 잠재 수요가 높아질 산업 테마로 분석됩니다.

주요 산업 테마 하이라이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 때, 현재와 미래를 향한 긍정적 임팩트는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HGI-트리플라잇은 듀얼 밸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투자 관점에서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Balanced Impact, Social Drive, Growth Drive 3개 영역에 속한 8개 산업 테마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1].

①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②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③의약품 제조 및 유통 ④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⑤금융·자산관리 서비스 ⑥주거복합시설 ⑦취업 지원 서비스 ⑧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개 산업 테마별로 연결된 사회이슈의 주안점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동향과 국내외 시장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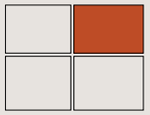
각 테마별 스타트업 및 기업의 사례도 분석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나 실버산업이 선진화된 시장(미국·일본·유럽 등)의 기업 중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을 찾고, 그중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했습니다.

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원격, 재택 의료 서비스 플랫폼 **Cera**
②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 종양 및 만성질환 증상의 관리를 돕는 디지털 치료제 전문 기업 **Voluntis**
③ **의약품 제조 및 유통** - 인체조직칩 기반 질병 모델을 통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플랫폼 개발 **Qureator**
④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 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올인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Birdie**
⑤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종합적인 은퇴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Retireable**
⑥ **주거복합시설** - 시니어 주거 영역의 통합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 **miiCare**
⑦ **취업 지원 서비스** -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배송 대행 솔루션 '옹고잉' 운영 **내이루리**
⑧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돌봄을 정의하는 기업 **Papa**

또한 Open AI의 Chat GPT 출시 이후 AI(인공지능) 산업 주목도가 높아지는 만큼, 실버산업의 AI 활용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스페셜 섹션(52p)에 담았습니다. 2019년 이후 지난 4년간 실버산업과 인공지능이 함께 언급된 미디어 데이터 약 26,000건을 분석하여, 산업별 IT 기술 관련 키워드 트렌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자 분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실버산업에 미칠 AI 영향력에 대한 전망과 인사이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과 실버산업이 결합되어 혁신적인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고령화 문제 해결을 통한 긍정적 임팩트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이슈 중요도와 산업 매력도가 낮은 영역은 이슈 심각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스타트업이나 벤처투자로의 빠른 성장을 거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Social Drive 영역에 속하지만, 성과 및 임팩트 KPI 등 증거 기반의 데이터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 산업 테마도 사례 분석 하이라이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1.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 이슈 :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웰에이징' 시대로

최근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1]은 기대수명에 비해 짧습니다('20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83.5세, 건강수명은 66.3세). 특히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 전문적인 치료와 동시에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니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18p)에서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신체 제어 및 인지능력 저하, 퇴행성 뇌질환, 의료비 부담 증가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약 20%(총 19개 중 4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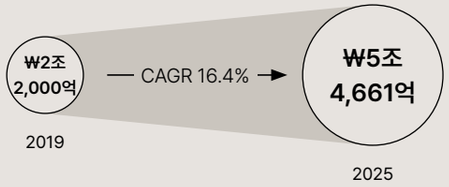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시니어의 물리적 생활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ageing in place) 개인화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질병 관리를 최적화하고 전문가의 개입을 돕는 건강관리 플랫폼, 비대면 임상진료를 가능케 하는 원격 및 재택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2]. 최근 AI, mHealth(모바일헬스), 웨어러블, IoT 등의 기술 키워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의료 접근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반 로봇(Companion Robot)은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모두 종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투약 및 운동 가이드 등 신체 건강 유지를 돕는 동시에 정신적, 정서적 건강 개선에도 필요한 인지 치료, 사회 관계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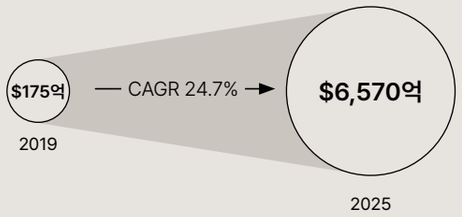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엄격한 시장 규제 상황 하에서도 원격 의료, 가정 진단 등 소비자 대상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175억(약 23.4조 원)에 이른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4.7%의 고성장을 이루며[4] 2025년 $6,570억(약 8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5]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한국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의 경우 지역 의료 격차, 건강보험 고갈 등 문제가 심화되며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하면서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숙련도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도 높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료 업계, 기술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제화와 제도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촉구되고 있습니다.

[1]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한국건강증진개발원)
[2] e.g. Sprinter Health, Cera, K heath, MyndYou
[3] e.g. Intuition Robots, Hippocratic AI, Sara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2), 품목별 ICT 시장동향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현황: 소비자 참여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검토

주요 기업 사례

Cera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원격, 재택 의료 서비스 플랫폼

소재지	영국 런던	**설립 연도**	2016년
투자단계	Series C	**누적 투자금**	4억 2천 백만 달러 (약 5,706억 원)
주요 투자사	Kairos HQ, Jane Street, Vanderbilt University Endowment, Evolve Healthcare Partners 등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4**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핵심 KPI

83%	17%	70%	10배	5천만명
낙상 환자 예측 정확도	낙상 환자 감소	입원 환자 감소	병원비 감소	방문 의료 누적 수혜자 (2024년 기준)

Cera는 선도적인 홈 헬스케어 제공업체로, 환자가 집에서 전문가의 진료, 간호, 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방문진료, 원격의료를 넘어서,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및 활력 징후를 실시간으로 수집, 모니터링하여 빠르게 건강 상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에게 낙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7일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알리는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원하는 환자가 70% 줄고, 의료 비용이 10배 가량 감소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병상과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Cera는 2022년 Kairos HQ가 주도하는 투자 라운드에서 3억 2천만 달러(한화 4,300 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며 유럽 시장 내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일 60,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수혜자 수가 5,000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Cera는 투자를 통해 접근 가능한 환자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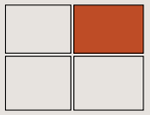
sprinter health	기술 기반 재택 예방의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2021년 설립, 미국, Series A

Sprinter Health는 모바일 임상 전문가와 의료진의 가정 방문을 통해 집에서 진단/검사, 약물 치료 지원, 후속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 의료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동성 및 접근성 제한으로 정기적인 신체, 혈액, 진단 검사가 어려운 고령자들의 재택 치료가 가능합니다.

intuition robotics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AI 기반 동반 로봇	2016년 설립, 이스라엘, Series C

Intuition Robotics는 외로움, 고립감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건강 위협에 노출된 시니어들을 위해 AI 및 LLM 기반 동반 로봇 ElliQ를 개발했습니다. ElliQ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건강 점검, 투약 관리,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위한 게임과 운동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을 편리하게 돕는 앱을 제공합니다.

02.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주요 이슈 : 의료 인력/인프라 부족 및 의료비 부담 심화

치료가 필요한 시니어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과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진료 비용도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97만 원으로 전체 인구(186만 원) 대비 3배 가량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43.2%) 또한 OECD 최고 수준으로 국내 시니어들에게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에서도 의료기기 개발이 필요한 고령화 관련 문제로 의료비 부담 증가, 퇴행성 뇌질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3개 이슈가 도출됐습니다. 예방·진단·관리·치료·재활 등 모든 의료 부문에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특히, 진단 및 예방 의료기기의 고도화와 환자 맞춤형 의료가 핵심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가 1%만 증가해도 전체 보건 비용의 5%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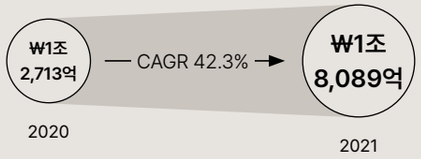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비용효과성을 개선하는 진단/치료 기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진단과 치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혁신 의료기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나 혈액을 분석하여 질병이 발현되기 전 빠르고 편리하게 유병 위험(risk of morbidity)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1].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도 주목받고 있습니다[2]. 주로 정신건강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근골격 질환, 당뇨, 암 등의 질병 치료에도 높은 효과성을 보이면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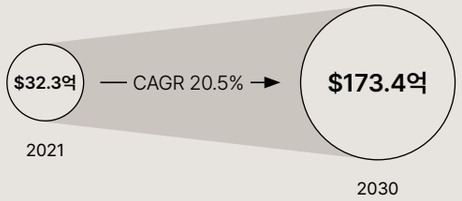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글로벌 DTx 시장 규모는 2021년 32.3억 달러를 기록[3]했습니다. 2030년에는 17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은 2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Tx가 발달한 미국 시장에서는 2017년 Pear Therapeutics의 reSET의 FDA 인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40개 이상이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디바이스, 로봇을 접목한 치료 솔루션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고령친화 의료기기 제조업



글로벌 DTx 시장 규모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혁신 의료기기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초고령화 대응'이 포함됐으며, 디지털 헬스 신기술과 체외진단 분야의 임상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17)', '국제 공통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2022)'을 발간하며 글로벌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표준을 선도 중입니다. DTx로 허가를 받은 첫 사례는 2023년 에임메드의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솜즈(Somzz)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 DTx제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 2018년 6건 대비 지난해 4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 e.g. Neurotrack, Quanterix
[2] e.g. Orbit Health, Voluntis, OROI
[3] 정준호(2023),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DTx, Digital Therapeutics) 산업 현황 및 전망,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주요 기업 사례

VOLUNTIS 종양 및 만성질환 증상의 관리를 돕는 디지털 치료제 전문 기업

소재지	프랑스 쉬렌	**설립 연도**	2001년
투자단계	Acquisition (2021년)	**누적 투자금**	3,120만 달러 (약 424억 원)
주요 투자사	Aptar Group, Qualcomm Ventures, Innovation Capital, Karista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핵심 KPI

87% 암 환자의 자가 복약 부작용 완화

10배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당 달성률

10만명+ 미국 내 활용 환자 수(2021년 기준)

Voluntis는 디지털 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돕는 Oleena, 당뇨병 관리를 돕는 Insulia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EHR용 모바일 앱과 의료진의 웹 포털을 통해 환자의 치료 프로필에 따른 권장 실행 사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평가하고 즉시 증강 관리와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전달 장치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자가 투여 과정을 안내 받고 복약 효과를 자동으로 의료진에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재가 치료를 하는 암환자 87%가 부작용을 완화(가장 낮은 등급의 부작용만 발생)했으며,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혈당 목표치를 2배 더 많이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Voluntis는 미국, EU, 캐나다에서 14건의 규제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40개 이상의 다국적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Aptar Group이 Voluntis의 기업가치를 약 9,500만 달러(1,288억 원)로 평가하고 지분의 3분의 2가량을 인수했으며, 현재 Aptar Digital Health의 일부로 운영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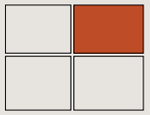
neurotrack	3분 안에 치매를 진단하는 디지털 테스트 전문 기업	2012년 설립, 미국, Series C

Neurotrack은 안구 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3분 안에 초기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디지털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등 일차 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Neurotrack은 2019년 Khosla Ventures로 부터 2,100만 달러(약 284억 원), 2022년 1,000만 달러(약 136억 원, 투자자 미상) 규모의 Series C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ORBIT	만성질환 치료 최적화 디지털 건강 솔루션 제공	2021년 설립, 독일, Pre-Seed

Orbit Health는 만성질환의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Neptune은 스마트 시계를 사용하여 환자가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포착하고 분석하며, 파킨슨병 환자가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AI 솔루션입니다.

03. 의약품 제조 및 유통



주요 이슈 : 만성질환·치매 등 의약품 수요 증가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약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 등 유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령자의 84%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유병률은 2008년과 비교해 약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1]. 또한, 인구 10만명당 치매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9.8명에서 2021년 20.2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2]. 증상과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면서 최적화, 개인화된 의약품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지만, 신약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0~15년의 긴 기간과 26억 달러(약 3조원)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3]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을 통해 의약품 제조 및 유통이 필요한 고령화 문제 역시 의료비 부담 증가, 영양(식단) 및 대사 관리 부족, 퇴행성 뇌질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등 5개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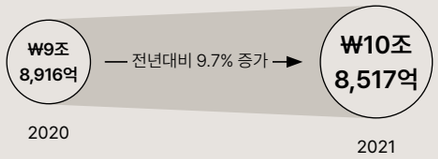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신약 개발 과정의 비용과 시간 절감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적 약물을 발굴하고, 임상 시험에 드는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고려하여 약물 설계와 생산을 돕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연구[4]에서는 1상 임상시험에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80~90%에 이르며,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2배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화와 치료 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유전자, 세포 치료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유전적 특성이나 약물 순응도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제시하며 의료비도 줄일 수 있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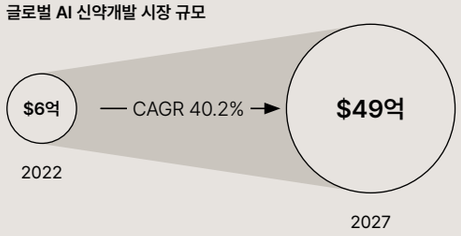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시장은 연평균 45.7% 성장하여 2027년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5]됩니다.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에서는 연구 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과 혁신적인 AI기술 적용이 시장 확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도 복잡한 헬스케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약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6].

국내 고령친화 의약품 제조업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 규모



국내 AI 신약개발 시장의 경우 2021년 1,340만 달러(약 182억 원)로 세계 9위 규모의 크기로 분석되며, 연평균 27.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 5,910만 달러(약 803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이 개발되어도 국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출시된 신약이 국내에 1년 이내 도입된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8%)에 한참 못 미치는 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까다로운 심사와 너무 낮은 약가를 제안하는 가격 협상 절차에서 기인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신속심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1] 중앙일보(2023), 노인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6월 27일 보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014#home
[2] 질병관리청(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3] Samsung BIO Insight(2023), 신약개발에서 '속도 경쟁력'은 왜 중요할까요?
[4] Madura KP Jayatunga, et al.(2024) How successful are AI-discovered drugs in clinical trials? A first analysis and emerging lessons

주요 기업 사례

QUREATOR — 인체조직칩 기반 질병 모델을 통해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플랫폼 개발 기업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	**설립 연도**	2017년
투자단계	Series A (2022년)	**누적 투자금**	약 180억 원
주요 투자사	HGI, 서울대기술지주, 스파크랩 파트너스, 윈베스트 등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핵심 KPI

4개 — 질병 모델 구축 건수

8개 — 연구소/기업 협력 건수

Qureator는 인체조직칩을 사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인체조직칩이란 인간의 세포를 활용해 질병의 환경을 칩 위에 모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로 약물에 대한 칩의 반응을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치료 결과까지 예측 가능하여 신약의 효능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동물모델 기반 전임상 연구에 비해 인체와의 유사성이 높은 테스팅 플랫폼으로, 신약의 효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ureator는 연령과 관련이 높은 위암, 대장암, 노인성 황반 변성증에 대한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혈액-뇌 장벽(Blood Brain Barrier)를 모방하는 배양 모델을 생성해 뇌질환 치료 목적 약물이 표적에 도달하는 정도를 시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 받아 Series A 단계에서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와 서울에 연구소를 세우고 인재를 영입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Notable Labs	예측정밀의학 기반 암 치료제 개발 플랫폼 기업	2014년 설립, 미국, Series B

Notable은 AI를 예측 정밀 의학에 통합하는 데 앞장서며, 환자 중심 약물 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형 종양뿐만 아니라 혈액암에서 150개 이상의 약물과 병용 요법을 사용하여 암 반응을 측정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voyager therapeutics	신경퇴행성 질환을 위한 유전자 치료법 개발 기업	2014년 설립, 미국, Public

Voyager Therapeutics는 중추신경계(CNS)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파킨슨병과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 등 치료법이 절실히 필요한 퇴행성 CNS 질환에 초점을 맞춰 임상 단계에 진입했으며, 아데노부속바이러스 (Adeno-Associated Virus, AAV) 캡시드를 활용해 유전자 전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Markets and Markets(2023), AI in drug discovery market
[6] e.g. Peptris Technologies

04. 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Balanced Impact

주요 이슈 : 요양 서비스 및 돌봄 수요 증가

전 세계적으로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년간 GDP 내 장기요양 지출 비중은 약 60% 증가했습니다[1].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17%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며, 10명 중 3명은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는 상황[2]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돌봄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중 25.7%가 보험의 존재를 모르고 있으며 요양을 받기 위한 요양 등급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요양 서비스의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3]에 따르면, 요양 서비스를 위한 돌봄 인력은 2022년 19만 명, 지난해 38만~7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 서비스 공급의 양적·질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이슈는 총 4개(영양 및 대사관리 부족, 여가 및 취미 생활 부족, 일상활동의 불편함, 신체 제어 및 인지능력 저하)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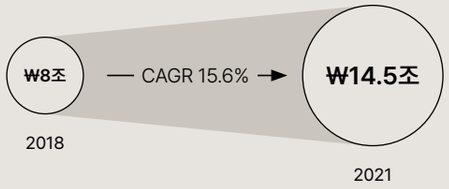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디지털 기술이 통합된 요양 서비스

요양 서비스(시설, 재가)를 비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칭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동시에 수급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어 부양 가족의 걱정과 피로를 최소화합니다[4]. 최근에는 돌봄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해 한정적인 자원을 서비스 품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SaaS 제품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돌봄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 서비스를 보조하고 넘어짐 방지, 긴급상황 대응 등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로봇도 등장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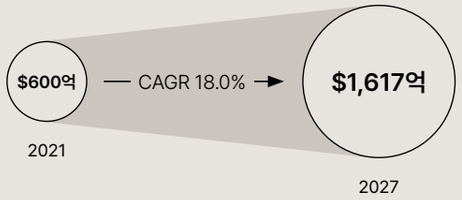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장기요양 수급자 온라인 매칭·관리 시스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1년 약 599.6억 달러에서 '27년 1,617.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CAGR 18.0%)됩니다. 'AI 기반 맞춤형 돌봄 플랫폼'은 '21년 116억 달러에서 '27년 726.2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측(CAGR 37%) 됩니다.

국내 시니어 케어(요양) 서비스업[5]



장기요양 수급자 온라인 매칭·관리 시스템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어 국내 요양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6%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온라인 매칭/관리 시스템 시장 또한 연평균 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케어링, 케어닥, 한국시니어연구소, 케어네이션 등 요양 서비스 플랫폼이 다수 등장하여 방문 요양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기 시니어를 위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은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적은 상황이라 시설 요양 분야의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Jonathan Gruber(2023), Long-Term Care Around the World
[2] 통계청(2023), 한국의 사회동향(67-77p)
[3] 한국은행(2023),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주요 기업 사례

birdie 재택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올인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소재지	영국 런던	**설립 연도**	2017년
투자단계	Series B (2022년)	**누적 투자금**	6,240만 달러 (약 848억 원)
주요 투자사	AXA, Index Ventures, OMERS Ventures, Sofina Ventures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한다.		

핵심 KPI

1,000개	5만명+	82%	(1주일에) 7~15시간	20%
누적 공급업체 수	누적 의료 전문가 고객 수	방문 누락 건수 감소율	행정 처리에 소비되는 시간 감소	진료 시간 증가율 (사용 1년 후)

Birdie는 영국과 유럽 전역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영국은 2022년 기준 약 16만 개의 돌봄 일자리 공백이 있었으며(전년 대비 55% 증가) 이로 인해 50만 명 이상의 시니어가 돌봄을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Birdie는 요양 서비스 업체 중 30%만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적으로 서면 서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irdie는 요양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올인원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방문 예약, 치료 계획 수립, 감사 보고서 준비, 송장 발행 등 업무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시니어와 가족들이 서비스와 관련 세부 정보(방문 시간, 제공된 서비스 이력 등)를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됩니다. Birdie는 2022년 Sofina, OMERS Ventures, Index Ventures로부터 약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으며 유럽시장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ottie	요양 시설 및 서비스 매칭 마켓플레이스	2021년 설립, 영국, Serie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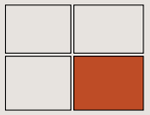
Lottie는 시니어와 요양원, 홈케어 서비스를 연결하는 무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영국의 의료복지 서비스 품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Lottie에 따르면, 시니어와 그 가족들은 최적의 간병 서비스를 찾기 위해 평균 6개의 업체에 연락한다고 합니다. Lottie는 돌봄 서비스를 찾는 과정을 현대화하고, 검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운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SARA ROBOTICS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 중심 돌봄 서비스 로봇	2019년 설립, 네덜란드, Seed

Sara는 장기요양 분야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 그룹과 함께 개발된 돌봄 로봇으로, 대화를 통해 장기요양 시설 거주자의 개인 프로필(취향, 출신지, 관심사 등)을 학습하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 자기 관리, 주간 활동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인사이트를 의료 종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요양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e.g Lottie, 케어링, 케어닥
[5] 하나금융연구소(2023), 시니어케어 시장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대응

05. 금융 및 자산관리 서비스


Growth Drive

주요 이슈 : 노후 빈곤율 및 소득 단절 증가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고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시니어의 14.2%가 상대적 소득 빈곤층이며, 약 3분의 2의 국가에서 빈곤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납니다[1].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이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체 인구와의 소득 격차도 25%p로 가장 큽니다. 전문가들은 조기 퇴직으로 인한 근로 소득 단절과, 성숙하지 않은 공적연금 체계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한편, 일부 고령층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이 쏠려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2년 국내 전체 순자산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7.7%로 작년 32.2%에 비해 늘어났으며,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됩니다.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노후 빈곤)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대비 및 빈곤 해소, 그리고 소비 및 투자 등 자산흐름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솔루션 트렌드 : 노후부터 상속까지 준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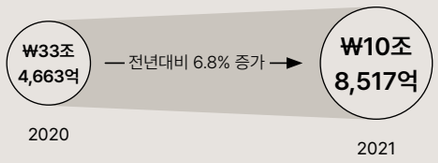
수입과 자산 현황, 생활비를 고려해 금융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맞춤형 자산관리 소프트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2]. 은퇴 계획과 연금 상품 등을 추천하여 퇴직을 앞둔 시니어들이 미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담보 신용대출이나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등을 통해 노년기에 필요한 유동자산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3]. 최근에는 인지 능력의 저하 및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금융 및 신용 범죄에 노출된 시니어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4].

*역모기지 : 처분이나 이사할 필요 없이 담보가치에 근거하여 주택 자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대출 받는 형태의 융자(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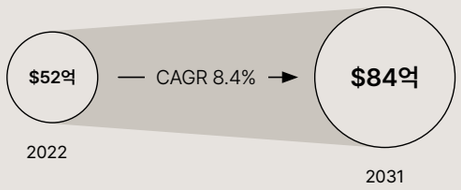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글로벌 자산관리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51억 8,084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8.39%로 확장하여 2031년 83억 99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주택자산 관리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각국의 주택 관리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민간 금융 기관들이 역모기지를 비롯한 각종 대출 상품을 제공[5]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고령친화 금융서비스업



글로벌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6]



국내에서는 자산운용사, 은행과 더불어 뱅크 샐러드, 토스와 같은 일반 핀테크 기업들이 시니어의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빈곤 문제 해소를 목표로 창업한 파운트(Fount)는 AI와 로보 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 대중화를 선도하며 740억 규모의 누적 투자 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저가주택에 대한 역모기지제도 활성화와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 미국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도록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평가[7]도 있습니다.

[1] OECD(2023), Pension at Glance
[2] e.g. Retirable, Empower
[3] e.g. Figure technology solutions
[4] e.g. Eversafe, True Link Fianancial
[5] All Reverse Mortage(2024), https://reverse.mortgage/rules

주요 기업 사례

Retirable 종합적인 은퇴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소재지	미국 뉴욕	**설립 연도**	2019년
투자단계	Seed (2023년)	**누적 투자금**	1,070만 달러(약 145억 원)
주요 투자사	Primary, Diagrm, Vestigo Ventures, Portage, Primetime Partners		
SDGs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핵심 KPI

10,000건+
전문가 자문 건수(매주)

5,000건+
고객을 위해 수립한 은퇴 계획(누적)

Retireable은 은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실버세대가 많다는 문제에 주목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감 있고 걱정 없는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낮은 이용자에게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개인화된 은퇴계획과 소득에 맞춘 자산 할당 전략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 관리 서비스와 연동된 전용 직불카드를 지급해 소비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습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미국인에게 제공되는 무료 상담을 통해 매주 약 10,000건의 전문가 자문이 제공되며, 누적된 고객 맞춤형 은퇴 계획의 수가 50,000건을 넘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연 이용료는 관리 자산의 0.75%이며 업계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2023년, Retirable은 총 6백만 달러(한화 약 81억 원)의 Seed 투자를 유치했으며, 투자금을 통해 직불 카드 개발, 자문팀의 성장, 노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FIGURE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솔루션 핀테크 기업	2014년 설립, 미국, IPO 준비 중

Figure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주택담보 대출, 개인 대출, 주택 담보 신용 한도(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 역모기지 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전통적인 대출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대출 승인과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퇴자가 주택 자을 활용하여 생활비, 의료비, 여가생활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대출 부문 사업부(LendCO)의 기업 공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치 평가액은 최대 30억 달러(한화 약 4조 750억 원)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EVERSAFE	금융 범죄에 취약한 시니어를 위한 리스크 관리 솔루션	2012년 설립, 미국, Seed

EverSafe는 사용자의 과거 금융 활동을 기반으로 개인 프로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신원도용 및 재정관리를 지원하는 개인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출, 투자, 지출부터 체납, 이자율 변경 등의 세부적인 활동을 식별하고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한 패턴 발생 시 사용자와 가족, 전문가에게 알람 메시지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6] Market Research Guru(2023)
[7] 서울경제(2024), 경제력 갖춘 뉴시니어 등장, 역모기지 등 자산관리 수요 폭발(4월 23일 보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D80WEUBAZ

06. 주거복합시설

Growth Drive

주요 이슈 : 안전하고 건강한 시니어 주거환경 부족

시니어들은 대부분 독립된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1] 그러나 신체와 인지 능력의 저하, 각종 질환 유병률과 우울감 증가 등의 이유로 특화된 주거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거나 위급상황 시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연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등이 골고루 갖춰진 주거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니어 맞춤형 주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곧 1000만명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 실버타운은 총 39곳으로 8840명(2022년 기준)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연평균 7.4%씩 늘어나고 있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2]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맞춤형 주거 환경 부족, 여가 및 취미 생활 부족 등과 같은 문제와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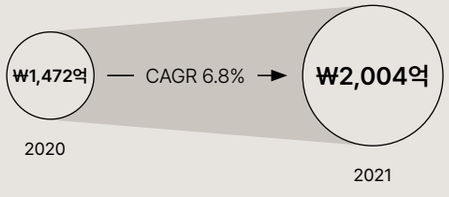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독립적이고 안전한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시니어 맞춤형 주거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가의 실버타운 뿐 아니라 홈쉐어링 플랫폼, 저렴한 주택 구독 서비스 등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3] 이들은 개개인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주거 니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홈/IoT 기술과 주거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를 돕는 솔루션도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4] 건강 및 의료 정보 관리(EHR), 안전 및 보안(낙상 방지, 응급 호출 등), 커뮤니티 참여(웰니스 활동, 양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주거자가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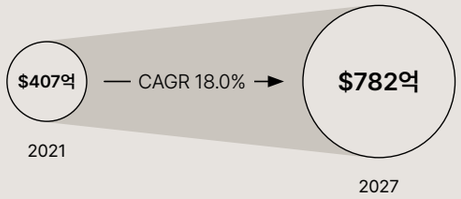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글로벌 생활보조 시설(패밀리 홈, 지역사회 기반 주거시설, 요양 주거복합시설 등) 시장의 규모는 2023년, 약 407억 달러로 평가되며 연평균 11.4%로 성장하여 2030년 78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특히 생활보조 시설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정책적 요구에 힘입어 규제나 규모 면에서 성숙한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APAC)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고령친화 주거 서비스업



글로벌 생활보조 시설 시장 규모



우리나라는 노인주거복지에 대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과 각 지자체의 대안적인 모델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 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고액 자산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화된 실버타운 공급 경쟁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 실버타운에 입주시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평균 2~10억원에 달하며 생활비도 100~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규제 완화와 기초법 제정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재되어 있어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IPSOS(2021), What the future: Aging
[2] 매일경제(2024), 1000만 노인시대, 실버타운 태부족 …'분양형 족쇄' 푼다
[3] e.g. Upside, silvernest, Nesterly
[4] e.g. MiiCare, Caremerge, K4Connect, Carepredict

주요 기업 사례

caremerge 시니어 생활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돌봄 지원 솔루션

소재지	미국 시카고	**설립 연도**	2012년
투자단계	Series B (2019년), 부분 인수 (2022년)	**누적 투자금**	2,530만 달러(약 343억 원)
주요 투자사	General Electric, Insight Partners, Cambia Health Solutions		
SDGs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 및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핵심 KPI

2,000개+	20만명	20%	10%
솔루션을 사용하는 시니어 커뮤니티 수	누적 의료 전문가 고객 수	주민 만족도 상승율	직원 초과 근무 감소율

Caremerge는 모든 유형의 시니어 커뮤니티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Caremerge의 솔루션을 도입한 시설 입주민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앱을 통해 웰니스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이벤트를 주도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내 입주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긴급한 문제를 가족 및 직원들에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기술을 제공받습니다. Caremerge는 입주자의 소통과 참여를 돕는 동시에 시설 내 직원들이 입주자의 건강과 주거 질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체 EHR(Electronic Health Records) 시스템을 통해 치료 계획을 제안하며, 약물 투여, 현장 진료, 메모리 케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대시보드를 지원해 효과적인 간병을 돕습니다.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솔루션을 제공한 Caremerge는 2019년까지 GE를 비롯한 투자사들을 통해 약 343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2년 주민 참여(engagement) 사업 부분을 요양 시설 전문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VoiceFriend에 성공적으로 인수 및 합병되어 ICON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솔루션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upside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임대 주택 제공 기업	2020년 설립, 미국, Seed

Upside는 새로운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노인 생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저렴한 주거 옵션을 제공하는 독특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다가구 주택 부동산과 제휴하여 시니어에게 적합한 임대 주택을 선별해주고, AI 기반 매치메이킹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 간병, 활동, 교통, 음식 등 다양한 돌봄 계획을 연동하여 지원합니다.

silvernest	시니어를 위한 홈 쉐어링 매칭 플랫폼	2015년 설립, 미국, Series A

Silvernest[6]는 독특한 룸메이트 매칭 기능으로 해당 지역의 잠재적인 룸메이트를 소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찾아 새로운 관계를 맺는 동시에 유동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안전한 사이트에서 적합한 보금자리와 잠재적인 룸메이트를 찾아 일반적인 임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5] Research and Market(2024)
[6] 2024년 5월부터 'HomeShare Online'으로 브랜드명 변경

07. 취업 지원 서비스

Social Drive

주요 이슈 :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하는 노후'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소득을 통한 경제적 빈곤 해소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 건강 수준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 2023년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니어 76%는 주된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5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일자리는 능력 또는 의지와 관계없이 저임금·단기·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해 55세 이상 취업자 중 37.1%는 비임금 근로자, 27.8%는 임시·일용직이었으며,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 45.5%는 60세 이상 시니어였습니다[2]. 실제로 이번 이슈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부족, 불충분한 노후 준비(노후 빈곤), 이른 정년 퇴직 및 조기퇴직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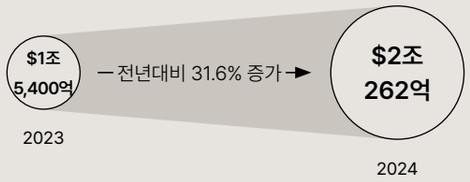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기회 제공

최근 등장한 시니어 전용 일자리 중개 플랫폼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직업 시장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니어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고려하여 유연한 근무조건과 재취업 교육,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3].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최근 교육 플랫폼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고경력, 고경험의 시니어들을 적극 활용하여 직접 강의를 진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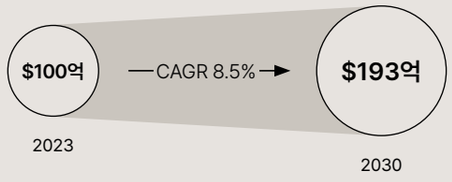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글로벌 일자리 중개 플랫폼 시장의 규모는 2023년 약 100억 달러, 2030년 약 193억 달러에 도달하여 연평균 1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직자의 역량을 고려한 채용이 중요해지면서,시니어들을 위한 고용 지원 서비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들[5]이 일자리 중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글로벌 평생교육 시장 규모



한국은 노인인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시니어의 고용 촉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6조 3848억 원이던 노인 복지 예산은 올해 25조 6483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31.6%)한 항목은 노인 일자리 분야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시니어에게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골자인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부문과의 다양한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정책에 따라, 이를 반영한 비즈니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적인 행태와 이중화된 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민간과의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6].

[1] KDI(2024),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2] 동아일보(2023), 고령사회, 더 치열해진 노인 일자리 경쟁... '초저임금' 근로자 절반이 60세이상(5월 10일 보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0/119216728/1
[3] e.g. 내이루리, Maturious, Seniors@work
[4] e.g. GetSetUp, Carevocacy

주요 기업 사례

내이루리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배송 대행 솔루션 '옹고잉' 운영

소재지	대한민국 서울	**설립 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2022년)	**누적 투자금**	1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HGI, 고벤처엔젤클럽, 브이엔티지, 팁스		
SDGs	**8.5**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핵심 KPI

91명	100%	83%	0.3%
고용된 시니어 인력 수	배차율	배송원 근속률	배송 지연율
			업계 평균(30%) 대비 100분의 1

내이루리는 시니어 인력 기반의 정기배송 대행 솔루션 '옹고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시니어에게 '시니어라서 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옹고잉은 정규직 배송원의 고정배차 방식으로 운영되어 100%의 배차율, 업계 평균 100분의 1수준의 배송지연율(0.3%, 업계평균 30%)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 경쟁사 대비 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송원의 근속률도 83%를 넘어섰습니다. 배송카트가 내장된 차량과 맞춤 UX/UI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앱을 제공하여, 시니어에게 적합한 업무강도와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보장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2022년에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취업과 연계된 시니어 대상 전문 교육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현대그린푸드와 MOU를 통해 직장인 대상 점심 식사 정기배송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다각도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매출이 18배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세 보인 내이루리는 2022년 말 Pre-A 라운드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maturious EMPLOYMENT FOR ALL AGES	데이터 기반 채용을 가능케 하는 인재 매칭 플랫폼	2016년 설립, 호주

Maturious는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중개 플랫폼으로 독자적인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분석하고, 이전 경력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직무를 추천합니다.

GetSetUp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에 의한 에듀테크 스타트업	2019년 설립, 미국, Seed

GetSetUp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싶어하는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교육 훈련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모든 수업의 강의자는 시니어이며, 시니어인 수강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구성됩니다. 구글 검색하기, 링크드인 프로필 만들기, 온라인 회의 참여하기 등 시니어의 눈높이에 맞춘 취업/창업 관련 강의 뿐 아니라, 요리, 미술, 사진, 운동 등 다양한 취미 강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e.g. NOWCC, Seniors4Hire
[6] Jooyeon Kank, Jungmin Park and Jaemin Cho(2022), Inclusive Aging in Korea: Eradicating Senior Poverty, https://doi.org/10.3390/ijerph19042121

0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Drive

주요 이슈 : 노인 소외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소외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가구 중 36%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립감·우울감는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소통 보다 동년배 친구나 이웃으로 관계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니어의 친목 단체활동 희망률이 2011년 37.5%에서 2020년 81.1%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족의 구성이 점차 변화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번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실버세대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사회관계 축소 및 고립 문제가 주요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관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노인 혐오· 학대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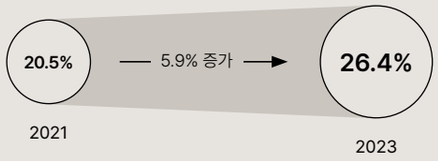
솔루션 트렌드 :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커뮤니티 기반의 SNS가 시니어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의 기능을 넘어 건강, 금융, 여가 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학습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1]. 나아가 봉사활동, 취업 등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고객 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친숙하지 않거나 시청각 능력의 저하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을 위한 기술도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동인입니다[2]. 서로 다른 세대를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시니어의 활동을 지원하며 비용을 받고, 시니어의 경험과 삶의 노하우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시니어의 외로움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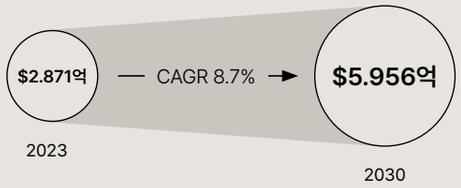
국내외 시장 동향

글로벌 커뮤니티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3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연평균 8.7%로 성장하여 2030년 약 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반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소셜 네트워크 참여도 활발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73%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증가[4]하고 있습니다.

국내 고령층 SNS 이용률 (70대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시장 규모



국내 65세에서 79세 미만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85.7%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인터넷 검색, 뉴스 구독,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로도나 이동의 불편함, 지병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들보다 SNS 사용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5].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킹 활동은 국내에서도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건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법적 제도 및 규제를 갖추는 등 신뢰와 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 e.g. Hongsong, Rest Less
[2] e.g. Dossy
[3] e.g. Papa, Mon Ami

주요 기업 사례

papa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돌봄을 정의하는 기업

소재지	미국 플로리다	**설립 연도**	2017년
투자단계	Series D (2021년)	**누적 투자금**	2억 4400만 달러(약 3329억)
주요 투자사	Softbank, TCG, Tiger global Management 등		
SDGs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건강 및 복리를 증진한다.		

핵심 KPI

60% 외로움 감소를 경험한 이용자의 비율

34% 시니어 고객의 응급실 이용 감소율

11% 시니어 고객의 재입원 감소율

Papa는 시니어의 고립문제와 세대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결이라는 가치를 통해 서로를 돌본다는 사명 하에 대학생과 고령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Papa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인 'Papa Pals'는 연결된 시니어들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 식사 준비, 가벼운 집안일,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시간당 $13~$18의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Papa Pals'는 활동하기 전에 안전 교육과 신원 조회를 통해 검증 받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60%는 사업을 통해 외로움이 감소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일이 적어지고(34% 감소), 퇴원 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감소했습니다(11% 감소). Papa는 2021년 소프트뱅크가 주도하고 TCG, Tiger global management 등이 참여한 1억 5천만 달러(약 2046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유치했으며, 14억 달러(약 1조 910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 받았습니다.

红松	은퇴자를 위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2016년 설립, 중국, Series A+

Hongsong은 시니어들이 노래, 악기 연주, 서예, 그림, 춤, 독서, 건강, 영어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주제로 사교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2022년 기준 천 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사용자들은 "xiaozhan(small station)"이라는 소그룹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사귀고,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듣거나 교류할 수 있습니다.

rest less	5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2018년 설립, 영국, Seed

Rest Less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연령 제한 없는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금융 조언, 건강 및 사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2022년 기준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50~70세 1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 Pew Research Center(2010), Older Adults and Social Media
[5] 더메디컬(2024), 분당서울대병원, 고령자 헬스케어앱 사용 조사(2월 5일 보도)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
[6] 코메디닷컴(2024), "노쇠할수록 SNS 사용 많아"… '어르신 85.7%' 모바일로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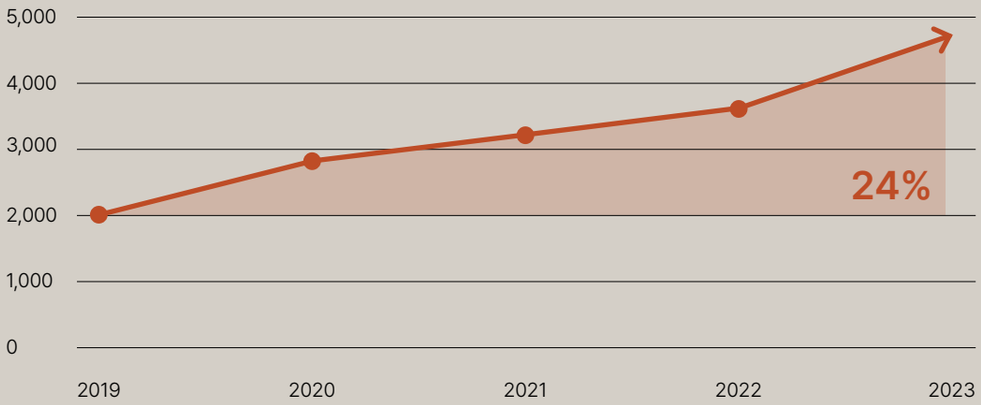
SPECIAL SECTION

AI가 실버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디지털 기술은 실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스마트 디바이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되며 '실버 테크', '시니어 테크', '제론(Gerone) 테크' 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디지털 혁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중에서도 활용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실버산업과 인공지능이 같이 언급되는 뉴스 데이터 수는 연평균 24%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Chat GPT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급성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실버산업+인공지능 뉴스 데이터 양



현재 실버산업에서 인공지능과 가장 밀접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각 산업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언급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언급도가 높게 나타난 기술 키워드는 '스마트', '데이터', '로봇'이었습니다. 금융 및 자산관리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데이터' 키워드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모빌리티와 주거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이 키워드 언급도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IT 기술 관련 뉴스 키워드 분석(2019-2023년)

■ 산업별 중복 언급된 키워드

	헬스케어	금융 및 자산관리	모빌리티	주거복합시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위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스마트**	**데이터**
2위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로봇**	**스마트**
3위	**로봇**	핀테크	자율주행	**데이터**	언택트
4위	바이오	**로봇**	스마트시티	플랫폼	**로봇**
5위	플랫폼	언택트	**로봇**	시스템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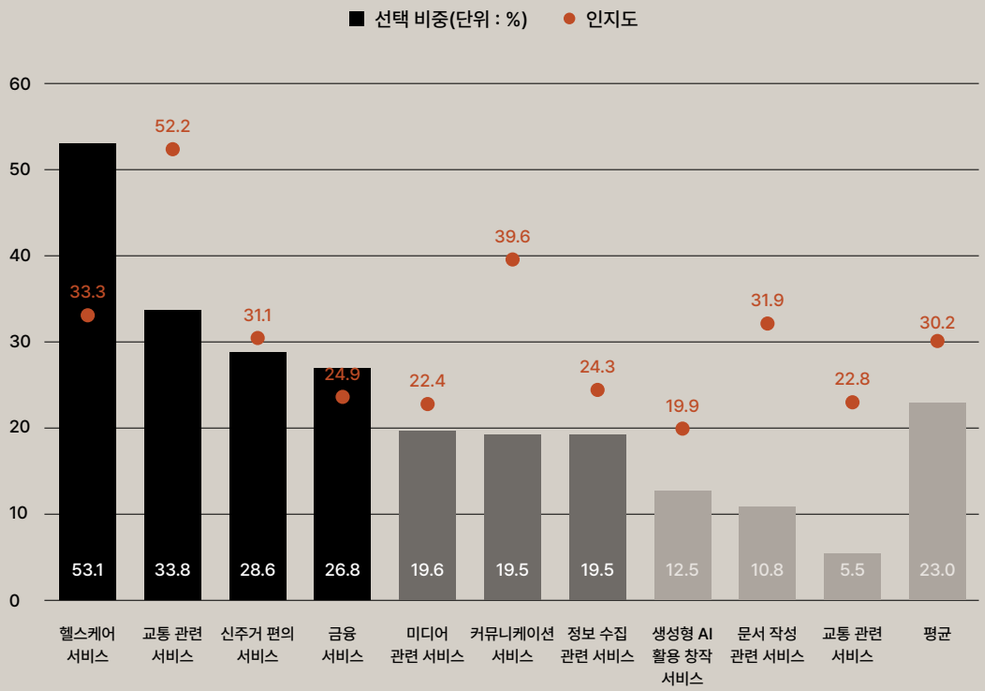
대중이 바라본 인공지능과 실버산업

그렇다면 국민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1]에서 '향후 이용하고 싶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비스는 '헬스케어 서비스(53.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서비스', '신주거 편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모두 25% 이상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이 접목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평균 30.3%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가 클 것이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중의 인공지능 수용 의향이 높은 모습입니다. 이는 주요 소비층이 디지털 기술에 보다 친숙한 베이비붐 세대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실버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돌봄뿐 아니라 금융과 모빌리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모습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잠재니즈를 찾아 실버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기술이 되어가는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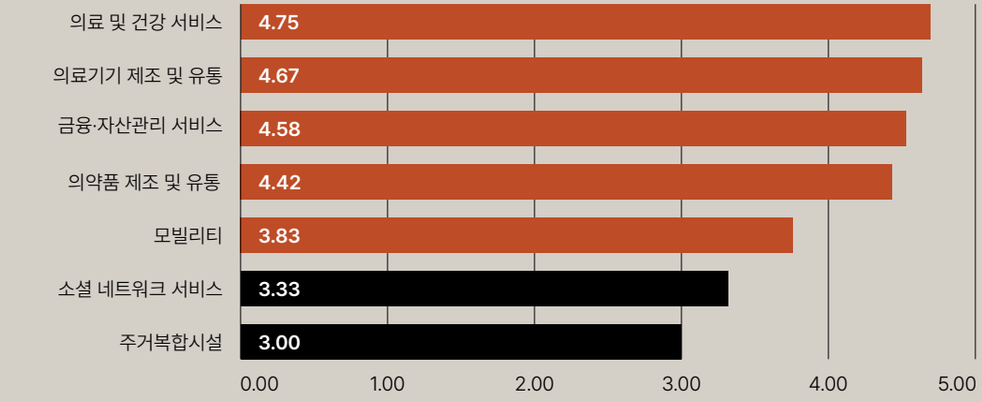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전문가가 바라본 인공지능과 실버산업

전문가들도 실버산업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HGI-트리플라잇의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산업 매력도 상위 5개 산업 테마(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제조 및 유통,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의 평균 점수(4.27점/5점 만점)에 비해,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된 상위 5개 항목의 평균 점수(4.45점/5점 만점)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투자 시장에서도 인공지능이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버산업별 AI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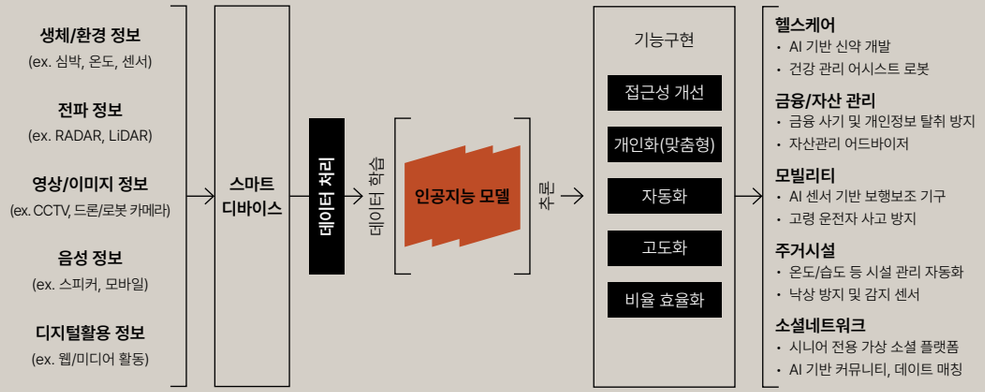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접근성 개선, 자동화,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접근성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언택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대면 서비스나 감정적 교감(Human touch)이 요구되는 산업 영역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자동화, 전문화, 표준화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해당 영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반면 인간의 대면활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
> **전문가 G**
>
> " 뷰티 및 패션, 교육 및 개발 등 액티브시니어 대상 wellness 관련 사업의 경우 human touch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AI가 완전 대체하기 보다는 일부 프로세스에 있어 효용을 주는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문가 J**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로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지면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대사 작용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로봇을 활용한 사례들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버산업 AI 활용 트렌드



CASE STUDY

Insilico Medicine

#헬스케어 #신약개발 #홍콩 #Series D #IPO 준비

신약 개발 및 발견 플랫폼인 Insilico Medicine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모델들을 활용하여 노화를 최소화하거나, 만성 질환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물 발굴 AI 모델인 PandaOmics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기반 심층 생물학 분석 엔진을 통해 표적 약물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인 Chemistry42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유사 물질을 찾고 신약 합성과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측 모델인 inClinico를 통해 이렇게 개발된 신약이 임상 시험을 통과할 확률을 분석하고, 설계상의 취약점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Insilico Medicine은 후보 약물을 자체 개발한 후 라이선스를 팔거나 시장에 직접 출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3900만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약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투자 라운드(시리즈 D)에서는 벤처 투자 자금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2024년에는 홍콩 주식 시장 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yberdyne

#신체보조 #모빌리티 #일본 #상장사(TYO 7779, 시총 288.64억엔)

Cyberdyne은 시니어의 재활과 이동성 개선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하지 및 단일 관절, 요추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하이브리드 의족(HAL)'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yberdyne의 HAL은 다른 외골격 장비들과 달리 AI 기반 바이오 센서가 있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보행을 보조합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생체전기 신호를 감지하면 외골격이 강화되어 근력과 안정성이 향상되는 원리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HAL을 사용한 환자들의 보행 속도가 개선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이동 속도가 39% 개선됐으며, 노인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Locomotive 5 Check에서 105%의 개선도를 보였습니다. 시니어는 물론 재활 환자, 중노동 근로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데 활용되는 Cyberdyne의 제품은 20여개 국가에서 대여, 판매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 도쿄 증권 거래소 Mothers 시장에 상장한 이래로 꾸준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361개에 머물던 운용 기기 수는 2022년 3,098개로 증가하며 매출액 3,289만엔을 달성했습니다.

HGI triplelight